



정답과 해설

고등독서



1. 나를 기르는 독서



(1)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010~015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인간은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08 ③ 09 ① 10 ③

01 글쓴이는 수학 생태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학을 떠나면서 기대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사회 생물학을 수강했다. 글쓴이는 유학을 떠날 때 동물을 직접 만나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가 학술적인 분야만 공부하게 되어,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수업을 찾아보다가 사회 생물학 수업을 발견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02 글쓴이는 사회 생물학 수업을 들으며 주 교재인 『사회 생물학』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어 이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는 과정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 생물학』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기적 유전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일 뿐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중간 1-④에서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디엔에이(DNA)는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생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중간 1-④에서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생존에 기여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04 처음-②를 보면 윌슨 교수의 저서 『사회 생물학』이 출간되고 난 후 사회 생물학에 대한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윌슨 교수가 이 책 때문에 물세례를 받은 이유는 윌슨 교수의 저서가 학계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기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05 글쓴이는 중간 1-⑧, ⑨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와 철학자들의 책과 비교하여 읽으면 삶의 의문에 대한 풍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중간 1-⑨에 따르면 글쓴이는 삶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혔고, 명쾌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들고(ㄷ),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했다고(ㄹ) 밝혔다. 또한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고자 글을 쓴다고(ㄱ)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대기도 했지만(ㄴ)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ㄴ.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이 있지만, 과거에 글쓴이가 사회 과학자들을 만나 토론을 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ㄹ. 글쓴이는 재수 시절 삶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철학이나 사회 과학 수업을 수강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07 글쓴이가 중간 2-①에서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라고 한 내용, <보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라고 한 점 등을 통해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느낀 황홀감이 좌절감으로 바뀐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08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을 재해석하며, 세상의 의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또한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찾아서 읽었다. 그리고 같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토론을 거듭했다.

09 중간 2-②에서 글쓴이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다치는 대로 읽었으며, 토론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 끝에 글쓴이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 이유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10 글쓴이는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이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신은 운명론자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하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운명론자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유전자가 자신에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글쓴이가 운명론자와 다르다고 한 까닭이 될 수는 없다.

④, ⑤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잠시 좌절감을 느끼지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에 금방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우고 다짐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운명론자와 다르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016~019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① 05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06 ④ 07 ②
08 ⑤ 09 ① 10 ④ 11 ③ 12 일정충분

01 (나)의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마)의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등을 통해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바)의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에서 글쓴이가 사회 과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사회 생물학』을 읽고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영어 실력이 그리 출중하지 않았지만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밤을 새웠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놓다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후 삶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였다고 하였다.

03 글쓴이는 디엔에이(DNA)를 ‘불멸의 나선’이라고 하였을 뿐, 왜 나선의 형태를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②, ⑤ (라)에서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서 모든 것이 명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바)에서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이런 점에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 과학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04 (마)에서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곤 했지만,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명쾌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이기적 유전자』는 우리의 디엔에이(DNA)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고, 우리 역시 그러한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렇게’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론해 본다면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06 점심부터 읽기 시작한 책을 밤새워 끝까지 읽고 나온 새벽에 글쓴이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 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④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진리를 터득한 글쓴이의 감격과 설렘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7 (나)에서 글쓴이의 황홀감이 좌절감으로 바뀐 것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간은 어차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08 글쓴이는 (마)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글쓴이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책을 찾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지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③, ④ (마)에서 글쓴이는 한 권의 책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09 (나)에서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다)에서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를 통해 ‘황홀감 → 좌절감 → 평안함’의 순으로 글쓴이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라는 내용에서 글쓴이는 유전자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글쓴이는 모든 생명체 중 인간만이 자유 의지를 통해서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하고 문화적 힘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끄는 존재라고 해석한다.

11 (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라고 했으므로 유전자가 내게 허락한 범주를 벗어난 일들을 해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나)에서 글쓴이는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 일이라고 말하며 삶에 대한 회의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일장춘몽'이다.

(2) 주제 통합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024~035쪽

- | | | | | | |
|------|------|------|--|----------------------------------|-----------------------------------|
| 01 ③ | 02 ② | 03 ③ | 04 ④ | 05 ④ | 06 ③ |
| 07 ⑤ | 08 ③ | 09 ⑤ | 10 ⑤ | 11 행복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등 | 12 ① |
| 13 ③ | 14 ① | 15 ⑤ | 16 ① | 17 ④ | 18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 19 ② | 20 ① | 21 ③ | 22 자신의 선택이 (쾌락적 즐거움보다)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 23 ② | 24 ⑤ |

01 이 글은 행복에 대한 철학자 밀의 견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ㄴ), 또한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밀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하는 문답의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ㄷ).

02 처음-①에서 밀은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고 밝히며, 기쁨과 고통이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중간-②에서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긍심을 다른 부분에서 느끼는 까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처음-①에서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논의를 지속한 까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중간-②에서 밀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자립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⑤ 처음-①에서 밀은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하였다.

03 중간-②에서 밀은 행복의 조건으로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행복이 타인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할 때 온전히 실현된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벤담(㉔)은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이자 행복이라고 여긴다. 반면 밀(㉕)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중간-⑦에서 밀은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되며,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지성은 자기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며, 억제해야 하는 것은 이기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중간-④에서 밀은 행복을 결과가 아닌 삶의 과정 그 자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중간-④에서 밀은 사람마다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임을 알 수 있다.

③ 중간-⑤에서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하며, 행복의 조건으로 지적인 소양의 계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중간-⑥에서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은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06 중간-⑤에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ㄴ). 또한 밀은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추는 데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고 하였다(ㄷ).

오답 풀이 ㄱ.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라는 언급은 있지만 지적 능력 계발의 이유가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ㄴ. 진정한 자기 발전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적인 소양의 계발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없다.

07 중간-⑤의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밀은 주지

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등을 참고할 때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는 표현은 밀의 주지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감성을 너무 강조하면 지적 능력 계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8 ‘욕망을 마음껏 충족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능가’가 아닌 ‘만끽’이다. ‘능가’의 사전적 의미는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섬.’이다.

09 이 글의 앞부분 줄거리에는 정신과 의사인 꾸삐가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달아 여행을 떠난 것이라는 여행의 동기가 나타나 있다.

10 꾸삐의 배움 목록 ③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배움 목록 ⑦, ⑩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재의 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현재를 잘 견뎌 내는 대가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꾸삐는 자신의 행복 목록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노승의 모습에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12 <보기>의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에서 남의 부유한 형편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꾸삐가 <보기>의 글쓴이와 만났다면 이를 통해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는 배움 목록을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3 끝-④에서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에서 행복감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릴 때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끝-②의 노승의 말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끝-④의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행복감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끝-③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끝-④의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를 통해 알 수 있다.

14 노승은 꾸삐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간 후 진정으로 만족하는 미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고 있

다. 이는 노승이 꾸삐의 수첩에 적힌 행복의 의미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5 끝-①에서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삐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노승이 꾸삐에게 산책을 제안한 것은 꾸삐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6 ㉠은 노승이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꾸삐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의미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가장 부합한다.

오답 풀이 ② 묵묵부답(默默不答)은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⑤ 문일지십(聞一知十)은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함을 이르는 말.’이다.

17 이 글은 인간 심리학에 대한 면도날 역할을 하는 진화 생물학적 견해를 가지고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상반되는 두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서론-②에서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에서 예시를 들어 자아 성취 욕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서론-②에서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⑤ 서론-②에서 진화 생물학적 관점으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8 서론-②의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를 통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아 성취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9 ‘수염이 대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라는 속담은 배가 불러야 체면도 차릴 수 있다는 뜻으로, 먹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곧 식욕과 같은 본질적인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에 가장 어울리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은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짭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

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어 이
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잣밥에만 맘이 있다'라는 속담은 맑은 일에는 정
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잇속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이다.

④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맛있이라'라는 속담은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
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이다.

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급
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이다.

20 <보기>의 '젊은 직장인 세대'는 남들이 알아주는 거창한 성
공을 꿈꾸기보다 휴식과 놀이, 취미 등을 통해 일상을 즐기려는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가치 있는 삶보다 행복한 삶을,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보다 기본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 성취는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욕구보다 자아 성취를 하는 데 욕심이 있다고 이해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21 결론-①의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등을 통
해 글쓴이가 쾌락을 행복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기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결론-①의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본문-④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명분을 위해 행복을 양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결론-①에서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
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본문-③의 초콜릿 연구를 통해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본문-③에서 '일반인의 합리주의' 현상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23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
학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높은 성적을 최대
한 활용한 선택을 한 것이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것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명분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등을 더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학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
고 보기에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24 E에게 '모두가 선망하는 국가 고시에 자녀가 합격하는 것'
은 하나의 명분이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취미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036~039쪽

01 ② 02 ② 03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
을 완성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① 05 ③

06 근원적인 행복감이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②

01 이 글은 철학자 밀의 관점에서 행복의 본질, 행복의 조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등을 설명하면서 진
정한 행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02 (나)에서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다)에서 '하
지만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라
고 한 점을 고려할 때, 밀은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 능력을 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밀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밀은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을 행
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을 행복
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밀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으로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추는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라)를 통해 밀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언하며, 이는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
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
문임을 알 수 있다.

04 꾸뎀은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약간 주눅
이 들었다고는 했지만 산책을 하자는 노승의 제안을 탐탁지 않
게 여겼다고 볼 만한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꾸뎀은 노승이 자신의 수첩을 본 후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고 말한다.

③ (가)에서 꾸뎀의 수첩을 본 노승은 꾸뎀에게 마음공부를 정말 훌륭히
해냈으며,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승은 꾸뎀이 작
성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보고 만족감을 표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노승은 꾸뎀과 함께 산책을 하며, 꾸뎀 스스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지 깨달을 수 있도록 침묵으로 가르침을 주었다.

⑤ (라)에서 꾸뎀은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
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05 이 글에서 꾸뎀은 행복이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
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점에서 항상 먼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바쁘게 살아가
는 사람에게 조언하기 적절하다.

06 노승이 꾸뻘과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전달하고자 한 진리는 바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이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뻘에게 행복이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가)에서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니며, 오컴의 날로 정리한 행복은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이 되는 구체적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행복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08 글쓴이는 (가)에서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며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에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말한다. 또한 (라)에서도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점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행복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과 '쾌락적 즐거움'이다.

09 (나)에서 글쓴이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라고 서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한 행동은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 곧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정받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글쓴이는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다. 따라서 먹는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인 요소가 행복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먹는 즐거움은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에 의해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먹는 즐거움은 음식물의 모양보다는 양이나 크기와 더 관련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자기만족을 높여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이상이나 도덕적 지침에 따라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 (가)에서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순간과 하나가 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다)를 포괄할 수 있는 질문은 ⑤이다.

11 (가)의 밑은 물질적 만족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뿐,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040~045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③
 07 ③ 08 ② 09 ③ 10 ③ 11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 지금 이 순간과 하나될 때, 즉 자신의 현재 상황에 몰입할 때 얻을 수 있다. 12 ③ 13 ③ 14 ② 15 ② 16 ④
 17 ⑤

01 이 글은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지적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했던 경험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혼란을 관련 서적을 읽으며 다시금 극복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이 글에는 한 분야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으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분야의 여러 책을 탐독하는 것이 더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수많은 서적까지 모두 자발적 독서를 실천한 것이다.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③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받은 영향으로 글쓴이는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는 점에서 한 권의 책이 해당 분야의 장기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느낀 생각과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련 책을 읽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03 글쓴이가 연구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글쓴이의 연구 분야가 바뀌었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04 (바)에서 글쓴이는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인간이 자유 의지와 문화의 힘을 통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바)에서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쓴이는 인간의 행동이 유전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 허무감 등을 느꼈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성격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07 (가), (나), (다)는 각각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글이다. (가)~(다)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각각의 글에서 행복이 어떠한 의미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 행복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에 관해 기존의 생각만을 고수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08 (가)에서는 행복은 결과가 아닌 삶의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론적인 태도는 (가)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에서는 행복이 결과가 아닌 삶의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 즉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⑤ (가)에서는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학생이 자기 의지에 따라 남이 가지 않은 일을 가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선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개성대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일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09 (다)는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쾌락적 즐거움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말한다. (가)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다)의 입장에서는 (가)를 비판할 때에는 행복은 이상적이고 최고의 가치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임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A]에서 꾸뻑이는 노승과 함께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꾸뻑이는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11 꾸뻑이는 노승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행복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점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을 해석해 볼 수 있다.

12 (가)에서는 도킨스가 쓴 ‘이 책’의 관점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고, (나)에서는 ‘진화 생물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쾌락적 즐거움이 행복한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두 글 모두 특정한 학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가)에는 글쓴이가 ‘이 책’을 읽은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주로 드러나 있다(ㄹ). (나)에서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과 진화 생물학적 관점을 대비하여 제시하며 행복에 대한 논점을 부각하고(ㄱ), ‘오컴의 면도날’,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ㄷ),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라고 묻은 후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라며 답을 하고 있다(ㄴ).

14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는 욕구’와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는 욕구’는 모두 자아 성취를 하려는 욕구로서 둘 다 자아 성취와 관련된 고차원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오컴의 면도날’은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을 면도날로 베어 낼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사용되며 사고의 절약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컴의 면도날’이 어떤 현상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⑤ (나)의 1문단에서 심리학에 최근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면도날 역할을 하며,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는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내용을 전복하여 서술하고 있다.

15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적 욕구에는 식욕, 성욕 등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욕구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이므로, A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인문 서적을 구매한 것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16 ㉠의 앞에 ‘이 책’에서는 인간을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라고 본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글쓴이가 학생들에게 조언한 내용을 고려해 보면, 학생들 또한 글쓴이처럼 ‘이 책’을 읽고 인간이 유전자를 보존하고 퍼뜨리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 (가)의 첫 문단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는 ‘이 책’을 읽고 인간이 자기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소통하는 독서



(1) 사실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050~05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①
07 ④ 08 ⑤ 09 ④ 10 ④ 11 ②

01 이 글은 미세 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비유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처음-②와 중간-①에서 미세 먼지 농도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미세 먼지 농도가 큰 틀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중간-①에서 미세 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처음-①, ②와 중간-②에서 미세 먼지에 대해 묻고 답을 제시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⑤ 중간-②에서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등 미세 먼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02 처음-②에서 환경부가 미세 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03 서울에서 PM-10(㉠, 미세 먼지)과 PM-2.5(㉡, 초미세 먼지)는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초미세 먼지 농도가 미세 먼지 농도보다 감소 폭이 조금 덜하다.

오답 풀이 ① 황사와 꽃가루는 모두 ㉠의 예이다.

② 2014년을 기점으로 미세 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미세 먼지는 ㉠과 ㉡을 모두 포함한다.

③ ㉠의 입자 지름은 약 10 μ m 이하이고, ㉡의 입자 지름은 약 2.5 μ m 이하이다. 머리카락 단면의 지름은 80~100 μ m이므로, ㉠과 ㉡은 모두 입자의 지름이 머리카락의 단면 지름보다 작다.

⑤ 환경부는 미세 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미세 먼지는 ㉠과 ㉡을 모두 포함한다.

04 <보기>는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를 이 글에 활용한다면 중간-①에서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05 중간-⑦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20 μ g/m³보다 높으며, 세계 보건 기구의 권장 기준은 10 μ g/m³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세계 보건 기구의 권장 기준보다 높다.

06 자연 미세 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면서 생성된다. 그중 황사는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황산염, 암모늄, 질산염, 유기 탄소는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된다.

07 중간-⑦에서는 우리나라 미세 먼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 먼지 농도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의 사전적 의미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습도, 압력 따위가 기준치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⑤이다.

오답 풀이 ①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②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는 의미로 쓰였다.

③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는 의미로 쓰였다.

④ '소리의 강도가 세다.'는 의미로 쓰였다.

09 중간-⑧에서는 풍속과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중간-⑨~⑩에서는 기압과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중간-⑪~⑫에서는 지구의 온도와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중간-⑧~⑫에서는 풍속, 기압, 온도 등의 기상 조건과 미세 먼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 중간-⑪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 기체를 많이 뿜어내는 것을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11 풍속(㉠)이 높을수록 오염 물질이 대기에 잘 섞여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 기압(㉡)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 등이 동반되어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 지구의 온도(㉢)가 낮을수록 나무에서 유기 기체와 유기 탄소가 적게 만들어져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풍속(㉠)이 높을수록, 기압(㉡)이 낮을수록, 지구의 온도(㉢)가 낮을수록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056~059쪽

01 ② 02 ⑤ 03 ③ 04 미세 먼지는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등이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서 생성된다.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② 10 ③
11 ④ 12 ④

01 (가)에서 미세 먼지 관련 뉴스의 보도 횟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였으나, (나)에서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 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 먼지 농도와 미세 먼지 관련 뉴스의 보도 횟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02 (마)에서는 초미세 먼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초미세 먼지의 생성 원리를 자연 현상과 비교한 것은 (사)이다.

03 (나)에서 지난 20년간 미세 먼지(㉠, PM-10)의 농도가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다)에서 초미세 먼지(㉡, PM-2.5)의 농도가 10년간 조금씩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입자 지름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②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이며, ㉠은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등이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 생성된다.
 ④ ㉡이 ㉠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과 ㉡은 모두 인체에 유해하다.
 ⑤ ㉠과 ㉡은 각각 입자 지름이 10 μ m 이하, 2.5 μ m 이하로 머리카락 단면 지름(80~100 μ m)보다 작다.

04 (라)에서 미세 먼지의 종류로는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바)에서 자연 미세 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05 (아)에서는 초미세 먼지를 생성하는 물질과 초미세 먼지의 생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유기 탄소는 나무에서 발생한 유기 기체가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어서 만들어 지고, 황산이나 황산염은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한 이산화 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어 만들어진단.

오답 풀이 ㄱ. 암모늄은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생성된다.
 ㄴ. 질산염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생성된다.

06 ㉢의 주어는 '초미세 먼지'이므로 문맥상 '생성한다'가 아니라 '생성된다'가 적절하다.

07 (라)의 중심 내용은 기압과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이다. 겨울철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을 언급한 것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을 때 미세 먼지 농도가 올라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08 (바)에서는 미세 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제시하고 있다(ㄴ). 또한 피나투보산의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대기 온도 하강을 인과 관계로 서술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바)에서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죽 늘어놓는 열거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ㄴ. (바)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구분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09 (바)에서 미세 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로 피나투보산의 화산 폭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 중에 미세 먼지가 많으면 미세 먼지들이 성층권으로 올라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대기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풍속이 미세 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 (다)~(라)에서 기압이 미세 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에서 지구의 온도가 미세 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③ (마)에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 기체가 많이 나오고, 유기 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 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에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불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세 먼지 농도가 올라간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 물질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 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10 (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 오염 물질, 미세 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한다고 하였다.

11 (다)에서는 기압이 미세 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의 앞부분에서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 먼지 농도가 1,000 μ g/ m^3 로 매우 높았다고 하였으므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이다.

12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은 '관망'의 사전적 의미이다. '관측'의 사전적 의미는 '육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 특히 천체나 기상의 상태, 추이, 변화 따위를 관찰하여 측정하는 일.'이다.

(2) 추론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062~069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③	06 ①
07 ⑤	08 ②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④	14 ⑤	15 ①			

01 이봉창의 옥중 수기가 발견된 사실을 담은 신문 기사에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옥중 수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2 전반부-③, ④에는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지만,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는 내용과 자신보다 1년에서 1년 반이나 늦게 채용된 일본인이 자신을 부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전반부-②에 총독부에서 철도 부지 명목으로 '나'의 집안의 땅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는 철도가 놓이고 교통이 발달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전반부-③, ④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은 일본인과 승진, 상여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③ 전반부-①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봉창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항일 의거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03 ㉠은 일본인보다 열심히 일해도 일본인에 비해 승진이 늦고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자신의 노동 현실에 대한 '나'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이 반영된 표현이다.

04 ㉠에서 '길'은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다.

오답 풀이 ① 밑줄 친 '길'은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③ 밑줄 친 '길'은 '건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을 의미한다.

④ 밑줄 친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한다.

⑤ 밑줄 친 '길'은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를 의미한다.

05 전반부-⑥에서 '나'는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 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하는 등 취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이로 보아, '나'는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반부-⑥에서 '나'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글에서 '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전반부-⑤에서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만나 오사카로 갔지만 직장은 자신이 구해야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나'는 의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전반부-⑤에서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아, '나'는 의심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전반부-⑤에서 취직하기 위해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니는 것으로 보아 '나'는 치밀하거나 꼼꼼한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06 반장이 처음에는 '나'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높은 임금을 주었으나, '나'가 조선인임을 알고는 처음보다 적은 임금을 주었다. 따라서 전반부-⑦과 전반부-⑧ 사이에 반장이 '나'가 조선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 생략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7 ㉠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였음을 나타낸다. 이 글에서 '나'가 고베 철도 우체국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했고(㉡), 부두 노동 일을 할 때에는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나'가 동료들과 일왕 즉위식을 보러 간 것으로 보아, 조선인이 일왕의 즉위식을 보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전반부-⑤~⑩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08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이라는 소재목으로 보아, '나'가 일왕 즉위식을 보러 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히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09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을 때는 아무 죄 없이 갇히게 되어 억울해하였고(㉠), 석방된 후 오사카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 주지 않아 세상을 원망하다 독립운동에 몸 바쳐 일하고 자 하는 의지를 다졌으며(㉡), 오사카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으로 속이고 점원 생활을 할 때는 조선인으로 태어나 일본인으로 사는 것을 서글퍼하였다(㉢).

10 후반부-②에서 '나'는 자신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면 두 사람에게 모두 도움이 되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다.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는 사자성어로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수수방관(袖手傍觀)'이 알맞다.

오답 풀이 ①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목불식정(目不識丁)'은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이다.

④ '안면부지(顔面不知)'는 '얼굴을 모름 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다.

11 '나'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이유는 한문과 한글이 섞인 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나'가 재촉하자 고등계 형사는 그동안 편지를 읽을 수 없어 풀어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12 오사카의 취직난이 심각하던 당시 '나'는 친구인 박 군에게 상하이의 영국 전자 회사가 조선 사람을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듣고 취직을 하기 위해 상하이로 갔다.

13 이 글은 이봉창이 조선인으로서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왕을 암살하려는 거사를 치르게 된 계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봉창은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의 행동 역시 정당함을 밝히고 있다.

14 '나'는 처음에 김구를 소개받을 때 '백정선'으로 소개받았고, 자신이 김구에 대해 언급하면 독립운동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수기에도 김구의 본명을 쓰지 않았다.

15 '불경기'는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경기에는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070~073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나'의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09 ⑤ 10 ⑤ 11 ⑤

01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것은 조선인이 받고 있는 차별 대우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일 뿐, '나'가 전철수로 일하면서 겪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나'는 총독부에 토지를 수용당하자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가운데 기골이 시작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부두 노동을 하면서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나'는 전철수로 일하면서 일본인에 비해 승진이 늦었고, (라)에서 '나'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우체국 열차계에 채용되지 않았으며, (마)에서 '나'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처음보다 내려갔다.

④ (라)에서 '나'는 오사카에서 직장을 구하다가 만난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02 (가)는 이봉창 의사의 옥중 수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 기사이다. 일왕을 암살하려 한 이봉창 의사의 의거 활동 내용은 제시하였으나, 그 동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03 (나)~(마)가 이봉창이 옥중에서 쓴 수기임을 고려할 때, 조선인인 자신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일왕을 암살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지사(當然之事)'는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판단할 때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고 여겨지는 일.'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불편부당(不偏不黨)'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일본인의 행태와 거리가 멀다.

② '불구대천(不俱戴天)'은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봉창이 후세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 주기를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자중지란(自中之亂)'은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을 의미하는데, 임시정부 내 이러한 모습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을 의미한다. 이봉창이 조선인의 무능력함을 책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마)의 빈칸의 뒷부분에서 조선인이면 부두 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임금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에는 '네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아서'가 알맞고, [B]에는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가 알맞다.

05 ㉠에서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나'의 자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즉 '나'는 현실에 체념하며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06 (다)에서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지만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에게 일을 배운 자(㉡)가 어느새 계(係)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된 것도 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인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정 지어 판단할 수 없다.

07 (가)에서 '나'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선과 일본 그 어느 쪽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08 (나)에서 '나'가 일왕 즉위식이 열리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던 중에 '나'의 주머니에서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이 자기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하였다가 아무 설명 없이 '나'를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 넣었다.

09 교토 검속 때의 경험이 '나'가 독립 정신에 빠져드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나'가 자신에게 치욕을 준 형사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임시 정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나'가 편지를 일본어로 읽어 주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형사를 알려 주자 바로 석방된 것으로 보아, '나'가 특별한 죄 없이 유치장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나'가 독립운동에 몸 바쳐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나'가 실제로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조선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면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팔지 않는 일본인 주인의 모습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일본 사람들의 행태가 드러난다.

④ (마)에서 자신이 나서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인이라고 속이기 위해 나서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같은 민족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나'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10 유치장에 갇힌 사건 이후 독립운동에 몸 바치고 싶었던 이봉창이 생각을 바꾸어 일본인 행세를 했던 이유는,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일본인 인부들을 보며 힘없는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조선인으로 살게 되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11 ㉔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㉕이다.

- 오답 풀이** ① 밑줄 친 '견고'는 '전문직에 종사하고.'라는 의미이다.
 ② 밑줄 친 '견고'는 '어떤 곳을 다리를 번갈아 움직여 위치를 옮기고.'라는 의미이다.
 ③ 밑줄 친 '견는'은 '널거나 깎 것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한곳에 두는.'이라는 의미이다.
 ④ 밑줄 친 '견고'는 '늘어진 것을 말아 올리거나 열어 젖히고.'라는 의미이며, 관용구로 '팔소매를 견고'는 '어떤 일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일할 태세를 갖추고.'라는 의미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074~077쪽

- 01 ② 02 ① 03 ② 04 ④ 05 ② 06 ④
 07 ③ 08 ⑤ 09 ⑤ 10 ④ 11 ④

01 사실적 읽기는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 것이다. 사실적 읽기를 할 때에는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여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며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선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추론적 읽기의 방법이다.

02 이 글은 미세 먼지의 종류와 생성 원리, 기상 조건과 미세 먼지의 상관관계 등 미세 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03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 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이 주변 공기와 잘 섞여서 그 농도가 낮아진다. 기압이 높으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에서 유기 기체가 많이 나오고, 유기 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 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져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04 피나투보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후 많은 양의 미세 먼지가 성층권으로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었고, 그 결과 대기 온도가 떨어졌다.

05 ㉑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 먼지이고, ㉒은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초미세 먼지이다.

오답 풀이 ① ㉑은 입자 지름이 10 μ m 이하인 미세 먼지에 해당하고 ㉒은 입자 지름이 2.5 μ m 이하인 초미세 먼지에 해당하므로, ㉑은 ㉒보다 입자 지름이 더 크다.

③ 서울에서 관측된 ㉑과 ㉒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㉑과 ㉒은 모두 감소하였으므로, 미세 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㉑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초미세 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㉒은 미세 먼지보다 크기가 작은 초미세 먼지에 해당한다.

⑤ ㉑은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가 생성되고, ㉒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된다.

06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은 온실가스가 지구의 평균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한 문장은 저기압일 때 미세 먼지 농도가 낮은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한 ㉔이다.

- 오답 풀이** ① ㉔는 미세 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로 구분하고 있다.
 ② ㉕는 'PM-2.5'의 뜻을 밝히고, 초미세 먼지를 미세 먼지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③ ㉖는 미세 먼지의 종류 중 하나로 검댕을 예로 들고 있다.
 ⑤ ㉗는 여름철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과 나무가 유기 기체를 내뿜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07 이 글에는 이 글을 쓴 목적이나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혹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이 글이 이봉창 자신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쓴 옥중 수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글이 쓰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상황 등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08 (마)에서 '나'는 일본인으로 사는 것 역시 고통임을 깨닫고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였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9 <보기>는 이봉창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일왕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서 느낀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봉창('나')이 받은 차별과 그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일왕을 암살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숨겨진 주제로는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의 행동도 정당하다.'가 적절하다.

10 ㉑은 '나'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으로, '나'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부두 노동을 하다 병으로 며칠간 누워 지낸 것은 '나'가 힘든 육체노동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뿐, 조선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경험은 아니다.

11 <보기>에서 이봉창의 의거 사건(㉑)에 대해 한국 언론은 '범인은 경성 출생의 이봉창'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범인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국 언론이 범인이 조선인임이 알려져 조선인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1) 비판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082~085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③ 06 ③
07 ⑤ 08 협력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01 글쓴이는 경쟁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서론-①~②에서 경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2002 한일 월드컵과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이 글은 '1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 '2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같이 소재목을 활용하여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다.

④ 본론-①~②에서 요한 하위징아, 토머스 홉스와 같이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서론-①의 도입 부분에서 글쓴이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의 원동력에 대해 묻고 답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경쟁이 운동 분야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경쟁이 인간의 본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운동 경기에서 경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제한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본론-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서론-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이 글의 글쓴이는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며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대답은 청소하는 일에 경쟁의 의미를 부여하여 더 재미있게 해 보자는 내용이 적절하다.

04 본론-②에서 토머스 홉스는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사람과 투쟁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5 결론-②에서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의 과정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본론-④~⑤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결론-①에서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치고, 결국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며 경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본론-③에서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본론-④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06 결론-②에서 글쓴이는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고 말한다. 또한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밝히며, 앞으로의 과정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07 본론-③~⑤에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자유 경쟁의 원리가 갖는 한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 경제가 이를 보완하며 발전해 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본론-③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본론-④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본론-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의 뒷부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은 협력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의미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086~089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⑤
07 ④ 08 ③ 09 ② 10 ③ 11 경쟁은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12 ②

01 이 글은 논설문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견해 및 사례를 들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따져서 판단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④와 같이 통계나 수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독자가 글을 주체적으로 읽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02 글쓴이는 이 글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로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경쟁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내용이 가장 적합하다.

03 <보기>의 글쓴이는 경쟁에 지친 현대인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자기 소진과 강박증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쟁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이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들은 <보기>와 관계가 없는 의문이고, 이 글은 이미 권위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경쟁이 인간의 본능임을 밝히고 있다.
③ 이는 <보기>의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이 글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이 글이 운동 분야로 한정해서 경쟁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04 (바)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05 ㉠은 '불다'의 사동사로 '겨루는 일 따위를 서로 어울려 시작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②가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 풀이 ① '불다'의 사동사로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불다'의 사동사로 '물체와 물체 또는 사람을 서로 바짝 가깝게 하다.'의 의미이다.
④ '불다'의 사동사로 '맞달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이다.
⑤ '불다'의 사동사로 '말을 걸거나 차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의 의미이다.

06 (다)에서 요한 하위징아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기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을 할 때 놀이와 오락이 더 재미있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겨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07 (라)는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경쟁에 즐겁게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전제 조건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08 글쓴이는 글 전체에서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임을 강조한다. 특히 (나)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경쟁을 통해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보기>는 경쟁이 유발한 악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냉혹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이 글의 글쓴이는 경쟁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②의 반응이 적절하다.

10 (나)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이며, 경쟁을 통해 이러한 타고난 이기심을 잘 활용할 때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글쓴이 또한 (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③의 내용이 적절하다.

11 (라)에서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한다. 또한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12 글쓴이는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창의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092~095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⑤

01 글쓴이는 서론-③에서 일본의 건축가가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아이들의 놀이 단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놀이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ㄱ). 또한 본문-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가 기능적 놀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문의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이 글에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ㄹ.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02 서론-②에서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려져 있다고 했으므로 ①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글쓴이는 이 글에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부상 유형을 둘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으로, 서론-②에서 글쓴이는 이러한 심각한 부상의 사전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서론-①에서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론-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서론-①에서 ㉠과 같은 부상은 예측할 수 있는 부상이라고 하였지만 ㉠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③ 서론-②에서 글쓴이는 ㉠과 같은 부상 발생 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놀이터의 설계,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서론-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글쓴이는 결론-①, ②에서 아이들의 도전 정신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단순하게 조성된 놀이터를 비판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위기 해결 능력과 도전 의식 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05 글쓴이는 우리나라 놀이터가 어디를 가나 구성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글쓴이는 놀이터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놀이터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 기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6 글쓴이는 결론-①에서 안전이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조언은 ⑤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096~099쪽

- | | | | | | |
|------|------|------|------|------|------|
| 01 ① | 02 ① | 03 ③ | 04 ③ | 05 ⑤ | 06 ③ |
| 07 ② | 08 ② | 09 ② | 10 ③ | 11 ④ | 12 ③ |

01 이 글은 논설문으로,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글이 주는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며 글을 읽는 것은 감상적 읽기의 방법으로, 이 글을 읽는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밝히고, 아이들을 위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03 <보기>의 글쓴이는 아이들의 놀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위험과 모험을 꼽으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글의 글쓴이는 (가)에서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둘의 대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04 글쓴이는 (다)에서 일본의 한 건축가가 쓴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놀이 기구 활용의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놀이 단계에 적절한 놀이 기구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② (나)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④ (가)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⑤ (마)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다.

05 글쓴이는 놀이의 세 단계를 설명한 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놀이터가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놀이터가 위험한 이유를 아이들의 '반달리즘' 경향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06 ㉠은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을 뜻한다.

② '귀찮은 일이나 말썽.'을 뜻한다.

④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⑤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을 뜻한다.

07 글쓴이는 (바)에서 아이들의 놀이와 안전에 대해 쓴 다른 사람의 글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ㄱ). 그리고 (가)에서 미끄럼틀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놀이터의 한계를 밝히며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ㄴ).

08 (라)에서 글쓴이는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마)에서 놀이터가 아이들의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이자 안전하지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다)에서 눈앞에 보이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10 (가)~(마)의 글쓴이와 (바)의 글쓴이 모두 놀이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11 글쓴이는 단순히 올랐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능밖에 없는 미끄럼틀을 예로 들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지루함을 느낄 때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아이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12 (나)에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대부분 탄성 고무 칩이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껍질인 바크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소재가 안정성 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감상적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02~107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① 08 ③ 09 ④

01 이 글은 글쓴이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일반적으로 수필은 글쓴이가 작품 안의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서술한다.

02 글쓴이는 분명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여겨 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미안하다고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글쓴이가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처음-㉓에서 글쓴이는 평소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ㄱ),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ㄴ),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ㄷ) 또는 자격지심을 거론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처음-㉒에 따르면 글쓴이는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04 중간 1-㉑에서 '나'는 자신이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 책을 읽는 상황에 화가 났지만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중간 1-㉑에서 '나'의 이유에 반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중간 1-㉑에서 '나'는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 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④ 중간 1-㉒에서 '나'는 어렸을 때 자신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⑤ 중간 1-㉓에서 '나'는 자신이 영수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점, 선생의 체면 등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온갖 구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05 글쓴이는 수업 시간의 영수와 서훈의 행동에 대해 자신에 대한 반항이자 모욕이라고까지 여긴다. 이렇게 화가 났던 감정이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온 학생이 말해 준 사건의 진상을 듣고 미안함으로 바뀐다.

06 글쓴이는 학생 하나가 찾아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 학생이 말해 준 바에 따르면 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영수의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책을 읽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오해를 품 글쓴이는 영수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07 이 글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을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일화에서는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를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08 경비원은 목발을 짚은 '나'를 보자 아버지가 왜 현관 가까이에서 차를 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며 아버지의 잘못을 따져서 아버지를 나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아버지의 사과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09 ㉑~㉔은 모두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나'의 태도와 연관된 문장이다. ㉔은 아버지와 경비원의 태도에서 글쓴이가 정서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자신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㉑의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는 표현에서 앞으로 이어질 사건에 영향을 받아 글쓴이가 인식을 바꾸게 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② ㉒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딸을 배려하고자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비원이 말한 원칙에는 어긋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㉓은 아버지와 경비원이 겪은 문제 상황이 바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있었음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부분이다.

⑤ ㉔에서 글쓴이는 앞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 글쓴이가 보일 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08~111쪽

- 01 ① 02 ② 03 ⑤ 04 서훈은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가 있는 영수를 도와주려고 대신 책을 읽은 것이다. 05 ② 06 ⑤
07 ⑤ 08 ⑤ 09 ③ 10 ② 11 ③ 12 ①
13 ④

01 이 글은 글쓴이가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02 (나)에서 글쓴이는 평소 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한다. '나'가 실제 거만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03 (라)에서 '나'는 영수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화를 낸 것에 대한 미안함에 사과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이내 (마)에서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구실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나'는 영수가 학기 초에 미리 말하지 않아서 자신이 몰랐던 점, 선생 체면에 이만한 일로 학생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점, 영수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일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04 (라)에 서훈이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이유가 나타나 있다. 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 영수를 도와주기 위해 대신 책을 읽은 것이다.

05 (다)에서 글쓴이는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를 심사숙고하여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중 타인의 질책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승부 근성이 투철한 '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한다.

③ '나'는 내가 남보다 못했다는 데에 대한 열등의식과 자격지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한다.

④, ⑤ '나'는 자신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한다.

06 '의구심'의 사전적 의미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무엇이 알고 싶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궁금증'의 사전적 의미이다.

07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를 전하는 글이므로 정서적 반응에 주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글에 드러난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읽는 것은 비판적 읽기에 해당한다.

08 아버지는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댄 일에 대해 경비원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나'를 기다리기 위해 현관 가까이 차를 댔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경비원은 아버지 연세와 비슷해 보인다고 하였다.

② 아버지는 경비원의 질책에도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였다.

③ (가)에서 '나'와 아버지는 '나'의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09 이 글은 '나'와 관련한 일화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글에서 두드러지는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라는 속담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나 마땅히 할 말을 도리어 남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글은 사과하는 말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속담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므로 아버지의 태도와 연관 짓기에 적절하다.

③ '식은 죽 먹기'는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을 뜻하므로 ③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잘 맞는 관용구이다.

④ '가랑잎으로 눈 가리기'는 자기의 존재나 허물을 숨기려고 미련하게 애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④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잘 맞는 속담이다.

⑤ '깨어진 그릇 이 맞추기'는 한번 그릇된 일은 다시 본래대로 돌리려고 애써도 돌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잘 맞는 속담이다.

11 이 글의 '나'는 아버지의 "채신? 원, 잘못된 거 사과하는 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나?"라는 말을 듣고 채신을 따지느라 사과하는 말에 인색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본다. 서로 배려하며 사과하는 두 어른들의 일화를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깨닫는 것일 뿐, 사과의 말을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한 것은 아니다.

12 글쓴이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일화를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서로를 배려하며 문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는다.

13 ㉔는 경비원의 원칙을 이해하지만 몸이 불편한 딸에 대한 배려로 어쩔 수 없이 사과할 상황을 야기한 아버지의 사과이다. 앞서 ㉔와 ㉔의 사과와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㉔와 ㉔는 경비원의 원칙을 이해하는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건네는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이다.

③ ㉔는 뒤늦게 '나'와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한 경비원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다.

⑤ ㉔는 '나'가 아버지와 경비원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후, 자신도 영수에게 미안한 일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을 다짐하며 한 말로, '나'가 아직 전하지 않은 사과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112~117쪽

- | | | | | | |
|------|------|------|------|------|------|
| 01 ③ | 02 ③ | 03 ④ | 04 ④ | 05 ⑤ | 06 ③ |
| 07 ⑤ | 08 ③ | 09 ③ | 10 ⑤ | 11 ② | 12 ⑤ |
| 13 ④ | 14 ② | 15 ④ | 16 ① | | |

01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의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을 따져 보며 글을 읽어야 한다. 또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반면 글쓴이의 지명도를 판단하여 글의 내용을 수용하며 읽는 것은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방법이다.

④ 글의 공정성을 판단하며 읽는 방법이다.

⑤ 글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는 방법이다.

02 글쓴이는 (라)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사례를 들어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예상 결과를 제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2002 월드컵 히딩크 감독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② (나)~(다)에서는 각각 철학자 요한 하위징아와 토머스 홉스의 견해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마)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활용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⑤ (바)에서는 '1명의 웃음을 위해 99명을 울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서술하며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03 (가)~(마)의 글쓴이는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며 불가피한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④이다.

04 <보기>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으로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내용이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견해를 펼친 경제학자로, 이기심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이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결국 소비자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되므로 ④의 내용이 적절하다.

05 (바)의 글쓴이는 경쟁이 유발하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1%의 웃음을 위해 99%를 울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협동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인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기업들 간의 기술 제휴를 활성화하는 것(㉔)이나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를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지출하는 것(㉕)은 (바)의 글쓴이가 주장한 협동과 연대의 사례로 적합하다.

오답 풀이 ㉔.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좋은 성과를 낸 사례이므로 (가)~(마)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하다.

㉕. 경쟁을 줄이기는 하지만 이는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의한 것으로, 협력과 연대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06 (가)는 오늘날 우리나라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재미없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나)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7 (나)에서는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제약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원 내 공간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8 ①, ②, ④, ⑤는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의 모습을 가리키고, ③은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을 가리킨다.

09 (가)의 글쓴이는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놀이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10 (나)에서는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제약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1 (나)에서는 도시공원이 일반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들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도시공원의 계획 및 기준 설정의 세부 원칙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도시공원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하여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사회적 약자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썸지 공원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도시 공간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들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제도적·물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2 이 글은 <보기>와 같은 내용 구조를 취하고 있다. 두 일화를 통해 '나'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를 깨닫는다. ㉠에서는 '나'와 영수, ㉡에서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등장하므로 동일한 인물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유사한 경험이 '나'의 깨달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나'는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반면 ㉡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② ㉠에서 영수에게 사과하지 않기 위한 여러 구실을 떠올리던 '나'는 ㉡에서 아버지와 경비원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③ '나'의 깨달음(㉢)에는 영수에게 사과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던 ㉠보다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에게 건네는 사과의 말로 문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상황을 본 ㉡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 '나'는 내일 수업 끝나고 영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실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3 (다)에서 '나'는 영수가 말을 더듬는 증세가 심해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어렸을 때 한 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표현한 수필로, 글쓴이는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관련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15 (나)에서 글쓴이는 분명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나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선뜻 미안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16 이 글의 (가)에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인색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사말을 미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글을 통해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 관습이 다르며, 고유한 언어문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1) 인문 분야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22~127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④ 05 ①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⑤ 11 ①

01 서론-②에서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론-②에서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고,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본론 1-①에서 철학다운 철학은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본론 1-①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부터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⑤ 본론 1-②에서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2 본론 1-①에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대상을 주로 연구했는지 그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6세기에는 자연 현상이나 우주, 신 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03 본론 1-②에서는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고,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04 서론 1-①에서 칸트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과,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05 이 글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논증해 나가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본론 1-④에서 내성의 개념을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본론 1-④에서 내성의 방법의 한계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본론 2-①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본론 1-④에서는 내성에 대한 영국의 철학자 흄과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론 2-②에서는 '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부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06 본론 2-②에서 부버는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를 다르게 보았으며, '나'를 관계 맺는 대상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본론 1-③에서 인류는 가장 기본적인 것('나')이 아니라 가장 먼 것(자연 현상, 우주, 신 등)부터 탐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본론 1-③에서 '나'를 탐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개별성과 추상성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본론 2-③에서 부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유일하지 않고 유한하며, '그것'은 다른 대상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본론 2-①에서 소크라테스는 '나'를 아는 것을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7 '내성'은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다른 존재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부버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본론 1-④에서 내성의 개념을 알 수 있다.
 ② 본론 1-④에서 과거의 학자들은 내성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본론 1-④에서 흄은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본론 1-④에서 사르트르는 내성의 방법으로는 의식의 웅달샘 속('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나'란 조약돌(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느,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8 본론 2-⑤에서는 A와 회사 동료들의 관계, A와 자녀의 관계를 사례로 들어,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09 본론 2-⑤에서 A는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적 관계, 즉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A는 자신의 아이와는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 즉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론 2-⑤는 A의 사례를 통해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결론-①에서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의 것으로,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전히 사적인 것으로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며 객관적일 수 없는 지식임을 알 수 있다.

11 결론-②에서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28~131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06** ③ **07** ② **08** ④ **09** ③
10 ④ **11** '나'에 대한 지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둘째,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12** ① **13** ③

01 이 글은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명언을 인용하여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내성의 한계와 관련하여 흄과 사르트르의 견해를 예로 들며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02 (바)에서는 옛날 학자들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내성의 개념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의 중심 내용이 내성의 필요성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는 칸트와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다)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에는 우주와 자연에 대해 먼저 관심을 보였고, 기원전 5세기부터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라)에서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며,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마)에서는 '나'는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03 이 글에는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한때 학자들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겼던 '내성'에 대한 내용이 (바)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내성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발전한 학문들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인간과 '나'는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으며,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다)에는 탈레스가 천체를 연구하기 위해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일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탈레스는 우주와 자연에 대해 연구한 철학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5 '나'를 알고 탐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나'의 개별성과 추상성 때문이다. <보기>는 그중에서 '나'의 추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에서는 '나'를 잡히지 않는 대상이라고 표현하며 '나'의 추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06 ㉠은 내성의 한계를 '달리는 기차'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다. '달리는 기차의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성의 방법을 의미한다(ㄴ). 또한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하면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ㄷ).

오답 풀이 ㄱ. '달리는 기차 안'은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의식의 웅덩이'와 같은 의미이다.

ㄹ.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흄이 이야기한 '본질로서의 나'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

07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의 의미를 가진 것은 '근본'이다. '궁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이다.

08 이 글은 '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부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부버의 견해를 근거로 삼아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라)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을 끝맺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이 글은 인문 분야의 글로, 인문 분야의 글에는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부버의 견해를 바탕으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9 이 글에서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이 글에 따르면, 내가 상대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때의 '나'가 진정한 나이다. 따라서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인격 전체가 동원된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 즉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② 진정한 '나'가 되는 것과, 내가 다른 대상과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③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⑤ '나'는 상대와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존재로,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

11 (바)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이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반면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지식 이상의 것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12 민희의 동생들은 민희가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민희를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희의 동생들은 민희를 비롯한 가족을 '나'와 '너'의 관계이자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로 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민희가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자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민희와 민희 아버지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동아리 대표 회의에는 부대표가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희와 동아리 대표 회의는 서로에게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며,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④ 민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다. 따라서 인격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일부와 '그것'의 만남에 불과하며 유일하지 않고 유한한 관계이다.

⑤ 민희와 동생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13 '전락'의 의미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이므로, '전락'은 앞의 '존경받는 현자'와 함께 쓰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불변'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함. 또는 변하게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②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의미한다.

④ '동격'은 '같은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⑤ '치원'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2) 예술 분야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34~139쪽

-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③
07 ③ 08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09 ② 10 ④
11 ④

01 중간 1-①의 '삶을 이루는 대부분 시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 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02 중간 1-④에서 사진에 찍힌 모습으로 내면의 본질을 읽어내는 일은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문 기사 속 인물 사진이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확신에 넘친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중간 1-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중간 1-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중간 1-③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중간 1-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3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매워 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흉내 내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 사는 모습의 진솔함을 담은 사진을 가장 잘 찍었다고 느끼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는 것도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04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의 의미를 가진 것은 '반증'이다. '반증'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 또는 그 증거.'이다.

05 인물 사진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겁내지 말고,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06 중간 2-①, ②에 따르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에는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하여 풍경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풍경 사진이 될 수 있다.

07 ㉠은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우리가 늘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삶이 반복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의 이유는 그 다음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 풍경을 정밀한 묘사력으로 재현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09 중간 2-④에서는 골목길 사진을 본 글쓴이의 감상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상반된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풍경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조건 중 카메라의 선택,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빛의 상태, 사진을 찍는 이의 감정 상태 등은 찍는 사람의 역량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여기에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을 더해야 한다고 하였다.

11 ㉠은 비교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에 함박눈이 내리는 풍경을 담은 사진이다. 글쓴이는 중간 2-④, ⑤에서 ㉠에 대해 눈발이 날리는 골목은 익숙하면서도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며, 사진의 분위기는 독특하고 눈 내리는 순간은 실재감 있게 표현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관념의 사진이 아닌 구체적 실체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글쓴이는 이 사진에는 식상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고,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흔적과 체취가 물씬 느껴진다는 자신의 느낌과 해석을 서술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40~143쪽

- 01 ③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다
큰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와 소통의 간절함 때문이다. 07 ③ 08 ② 09 풍경 사진이 한계를 갖는 이유는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이차원 평면인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이 필요하다. 10 ④ 11 ③ 12 ④

01 이 글은 예술 분야의 글이다.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예술의 개념과 사조, 또는 작가나 작품에 관한 글쓴이의 관점의 타당성, 참신성, 해석의 정확성 등에 주목하며 읽어야 한다(ㄴ). 또한 제재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ㄷ).

02 이 글에서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지양해야 하는 태도와 갖추어야 하는 요소는 제시하고 있지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할 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3 글쓴이는 갈등이 있지만 화해와 사랑으로 이겨 내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주제이며, 이를 주제로 한 사진은 보는 사람에게 위안과 격려를 준다고 말한다.

04 (라)에서는 인간사의 모든 드라마는 나에게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서,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는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② (다)에서는 사람을 찍은 사진이 가지는 세월을 초월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④ (마)에서는 삶의 순간을 담은 사진의 강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⑤ (바)에서는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과 그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5 <보기>의 사진은 잘 익은 벼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농부 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농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 수확의 기쁨과 농촌의 풍요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라)에 따르면 인간사의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보기>의 사진을 보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에게 수확의 기쁨을 느낄 만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6 글쓴이는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욕구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사람을 찍음으로써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통의 간절함이다. 사람들은 사람을 찍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고,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07 글쓴이는 (다)에서 골목길 사진을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소회를 밝힌 후, (라)에서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감상을 서술하고 있다(ㄴ). 그리고 (나)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좋은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며 독자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글쓴이는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지 않았다.
 ㄴ. 글쓴이는 (바)에서 풍경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조건을 나열하였으나, 외적 조건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는 않았다.

08 (사)의 마지막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러한 사진을 찍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될 사진, 스스로

발견해 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09 (나)에서는 풍경 사진의 한계와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이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진으로는 어차피 실제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 낼 수 없으므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에는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하여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은 비로소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

10 ㉠은 함박눈이 내리는 골목길을 찍은 사진이다. 이 글에 따르면 사진 속 골목은 익숙하면서도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우리가 이 사진에서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는 것은 붉은 벽돌 건물이 어쩐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진은 분위기가 독특하고, 눈 내리는 순간이 실재감 있게 표현된 구체적 실체의 사진이라고 할 만하며, 누군가 찍었던 방식을 따라한 식상함이 없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의 흔적과 채취가 물씬 느껴지는 사진이다.

11 글쓴이는 잘 찍은 풍경 사진이란 찍는 사람이 풍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느낌을 반영하여 재해석한 사진이라고 말한다. 또한 피사체의 내면의 본질까지 드러내려면 찍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여기에 사진이 곧 자신이 되는 일체감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2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의 의미를 가진 것은 ‘오로지’이다. ‘오롯이’의 사전적 의미는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이다.

(3)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46~15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③	10 감투 할미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사진 한 장	19 ⑤	20 ③			

01 전반부-②에서 ‘하루는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를 통해 규중 칠우가 규중 여자의 바느질을 돕는 공이 가장 큰 것은 누구인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인화 부인’은 인두의 이름으로, ‘불이 옮겨 붙은 부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인두의 쓰임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오답 풀이 ① ‘교두 각시’는 가위를 가리키며, ‘머리가 교차하는 각시’라는 뜻이다. 즉, 가위의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② ‘세요 각시’는 바늘을 가리키며, ‘허리가 가는 각시’라는 뜻이다. 즉, 바늘의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④ ‘감투 할미’는 골무를 가리키며, ‘감투를 쓴 할미’라는 뜻이다. 즉, 골무의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⑤ ‘청홍흑백 각시’는 실을 가리키며, 여러 가지 실의 색깔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즉, 실의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03 교두 각시는 척 부인이 마름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베어 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자신이 있어야 옷의 모양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척 부인이 주장한 내용이다.

② 청홍흑백 각시가 주장한 내용이다.

③ 세요 각시가 주장한 내용이다.

④ 감투 할미가 주장한 내용이다.

04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라는 말은 크고 훌륭한 자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잘것없는 데에서라도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감투 할미는 이 말을 활용하여 청홍흑백 각시가 세요 각시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비꼬고 있다.

05 “인화야, 너와 나는 말은 일이 같다. 그러나 인화는 바느질뿐이다.”에서 울 낭자는 인화 부인의 공예 비교하여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06 전반부-⑧에서 울 낭자가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울 낭자는 구겨진 상태의 옷감을 다려서 굵은 실을 날날이 펴고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도록 한다. 여름철에는 옷감이 얇아 구김이 잘 가기 때문에 의복을 다리느라 더욱 바쁘게 일한다. 또한 빨래하는 여자들이 풀 먹여 널어 두고 잠만 자며 부딪쳐 말려서 구겨진 옷도 고와지게 만들고, 세상 남녀들이 구김살 없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준다.

07 규중 부인이 규중 칠우의 대화에 개입함으로써, 칠우의 공치사가 끝나고 글의 내용이 전환된다. 또한 규중 칠우가 공치사하는 칠우에게 편지를 주어 그들의 불평을 촉발한다.

08 규중 부인은 필요할 때는 척 부인을 먼저 찾으면서 일이 끝나면 공을 자기에게 돌린다. 또한 종을 깨울 때에는 척 부인으로 종을 치는데, 척 부인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도 몰라준다. 척 부인은 이러한 규중 부인을 원망하고 있다.

09 세요 각시는 규중 부인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허리를 부러뜨린 후, 자신을 화로에 넣어서 통탄스럽고 원통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요 각시가 바느질을 하다가 부러져서 화로에 버려진 적이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10 감투 할미는 규중 부인이 칠우의 불평을 꾸짖자, 칠우의 잘못에 대해 규중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감투 할미는 칠우 중 가장 연장자로서 갈등을 중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1 후반부-④에서 세요 각시는 이따금 규중 부인의 손톱 밑을 찢어 피를 뱌으로써 규중 부인에 대한 원한을 풀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손가락에 끼워진 감투 할미(골무)가 세요 각시(바늘)를 막아서 이 복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요 각시는 감투 할미를 간사하고 흉악하다고 말하고 있다.

12 ㉠에서는 규중 부인이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감투 할미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감투 할미를 편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당대 사회 지배층을 풍자하는 부분이다.

13 이 글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허리띠, 구두의 일상을 풍자적·우화적·비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가죽 생활 소품인 허리띠와 구두를 의인화하고, 이들에 대해 주로 관찰자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허리띠와 구두의 일대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14 ㉠-①에 따르면, 허리띠는 일을 할 때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에 의지하여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주인이 오찬이라도 초대된 날에는 더욱 힘이 들기도 하지만, 주인이 허리띠를 풀면 잠시나마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요즘은 주인이 살이 찌서 꼬리의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에서 금속제 목이 떨어져서 숨씨 좋은 수선공에게 수리를 받은 것은 허리띠의 친구임을 알 수 있다.

㉡. ㉠-②에서 모임의 뒤풀이 같은 곳에서 주인과 함께 땀 흥내를 낸 것은 허리띠의 별난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①~③에 따르면 구두는 얼굴과 색깔이 같고 좌우가 대칭인 쌍둥이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낸다. 하지만 일생을 주인을 위해 살다가 버려지더라도 누구 하나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이가 없다.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반짝반짝 광이 나지만 비 오는 날, 진흙탕 길, 덧썩어 한 여름날의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온몸이 더러워져 싫어한다.

16 허리띠는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바람에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힘들워졌고, 구멍도 두 칸밖에 남지 않았다. 주인이 더 살이 찌서 마지막 구멍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주인이 크고 잘 생긴 신참 녀석을 데려올까 염려하고 있다.

17 주인이 애뜻함을 느끼는 대상은 지갑 속에 있는 빗바랜 사진 한 장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진 속에는 주인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 ㉓-㉔의 '주인은 마음속으로 빌었겠지, 사진만이라도 돌려주었으면 하고.'를 통해 주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지갑의 주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품고 다니고,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어머니 무덤의 눈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주인이 어머니께 느끼는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주인의 끔찍한 발 냄새를 맡으며 일해야 하지만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게 된 구두의 고달픈 처지를 '구수한 청국장 냄새'라는 표현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 부분이다.

- ② ㉔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글의 흥미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③ ㉔은 지갑이 옷의 가장 깊은 곳, 즉 주인의 심장과 가까운 속주머니에 들어 있음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④ ㉔은 지갑이 주인과 헤어지게 되었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20 ㉔는 쌍둥이 구두가 식당에서 구두 아가씨를 만난 일을 가리킨다. 점심 식사 약속 때 주인을 따라간 쌍둥이 구두는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향기의 구두 아가씨를 만난다. 쌍둥이 구두는 구두 아가씨와의 만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녀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56~159쪽

- 01 ④ 02 ③ 03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이며 솜씨와 격식을 이루려면 내가 필요하다. 04 ⑤ 05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당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할 수 있다. 06 ⑤ 07 ④
 08 ⑤ 09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 둘 비밀 하나 10 ③ 11 ③

01 이 글에서는 의인화된 바느질 도구들이 대화를 나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 글이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을 개성 있는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칠우의 이름은 그 쓰임새 혹은 생김새를 근거로 하여 붙여진 것이다. 교두 각시는 가위의 이름으로, 머리가 교차하는 생김새에서 따온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울 낭자는 다리미의 이름으로, '뒤틀(다릴 울)', 즉 옷을 다리는 쓰임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 ② 세요 각시는 바늘의 이름으로, 허리가 가는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④ 감투 할미는 꿀무의 이름으로, 감투를 쓴 듯한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⑤ 인화 부인은 인두의 이름으로, 불이 옮겨 붙은 상태로 사용하는 쓰임새에서 따온 이름이다.

03 척 부인은 자를 의미하며, 옷감을 펼쳐 놓고 마름질할 때 그 길이와 크기를 재는 역할을 한다. 척 부인은 (나)에서 "옷을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공이 으뜸임을 주장하고 있다.

04 인화 부인과 울 낭자는 옷감이나 옷을 문질러 주름이나 구김을 펴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울 낭자는 규중 부인을 원망하는 인화 부인에게 "그대와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05 규중 부인은 자신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한 칠우들을 꾸짖었다. 반면 자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감투 할미의 의견은 받아들여, 칠우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감투 할미의 공을 높이 사 비단 주머니에 감투 할미를 넣어 늘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모습으로, 당대 사회 지배층을 풍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6 감투 할미는 칠우의 잘못에 대해 규중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동시에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저희의 조그만 공'과 같은 표현을 통해 칠우의 공을 은근히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감투 할미가 칠우의 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 글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허리띠, 구두, 지갑을 의인화하여 이들의 일상을 보여 주고 있다. 서술자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세 가지 사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사물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08 (바)~(사)의 녀석은 지갑이다. 지갑은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담고 있어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주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어느 날 주인이 전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지갑과 주인은 잠시 헤어졌다가 재회하게 된다. 지갑은 주인과 헤어져 있는 동안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고, 사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허리띠가 주인의 허리가 더 굵어져서 버틸 수 없게 되면, 주인이 다른 허리띠를 사 올까 봐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에서 구두는 주인이 외출할 때 한 녀석만 데리고 가는 법이 없어서 언제나 함께 지낸다고 하였다.
 ③ (마)에 따르면 구두는 주인이 다시 그 식당으로 가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④ (사)에서 지갑과 주인이 잠시 헤어진 이유는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쳐갔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9 쌍둥이 녀석들은 주인의 점심 식사 약속에 따라갔다가, 부드러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외양을 지닌 구두 아가씨를 만났다. 쌍둥이 녀석들은 구두 아가씨를 보고 전율과 놀라움을 느끼고, 그 짧은 순간을 마음속에 담아 둔 채 살아간다. 쌍둥이 녀석

들의 이러한 강렬하고 소중한 경험은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 둘 비밀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다.

10 이 글에서는 허리띠, 구두, 지갑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글에 두 개 이상의 구성 방식이 겹쳐 많은 이야기를 담는 복합 구성은 이 글에서 쓰이지 않았다.

11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의 의미를 가진 것은 '관심'이다. '충애'의 사전적 의미는 '남달리 귀여워하고 사랑함.'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0~165쪽

01 ④ **02** ⑤ **03** ③ **04**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며,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② **10** 인물 사진은 사진 속의 삶을 이어 가는 수많은 인물이 끝없는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일은 결국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 ⑤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③ **17** ⑤ **18** 주
 인의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01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그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밝히고 사유하도록 하는 글이다. 또한 대체로 어느 한 가지 절대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더하는 것을 지향한다. 인문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담긴 글쓴이의 주관과 통찰력이 타당하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다른 관점의 글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02 (가)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적 탐구 대상이 변화한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적 탐구 대상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지 않다.

03 (바)에 따르면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자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이때 '나'와 '너'는 모두 인격 전체이자 유일한 존재이므로, '나'와 '너'의 만남은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5세기 무렵부터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는 '나'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라)에 따르면 부버는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변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내성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04 (나)에서 우리가 자연, 우주, 신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거쳐야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05 흄(㉠)은 내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르트르(㉡)는 내성을 통해서 '나'란 조약돌, 즉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흄과 사르트르는 모두 내성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06 A와 회사 동료들은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고 있으므로 서로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A와 회사 동료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A와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A와 아이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7 이 글은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진의 특성은 무엇인지,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08 (바)에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 즉 풍경의 재현이 아닌 해석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진을 찍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의도를 해석한 ⑤의 감상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09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거기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10 (라)에서는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과 애정을 가지고 찍은 인물 사진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라)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긴 사진에서 사진 속 인물들은 끝없는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선택,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빛의 상태 등 찍는 사람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외에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도 필요한데, 이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2 사람들은 인물 사진을 통해 다른 이와 소통하고자 하므로, 인물 사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풍경 사진의 경우 실제의 입체감을 살릴 수 없으므로 찍는 사람이 자신의 해석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가)의 서술자는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규중 부인과 칠우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으며, (나)의 서술자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허리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가)와 (나)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적인 시선에서 대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가)와 (나)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14 (가)에서 규중 칠우는 당당하게 자신의 공을 뽑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차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는 봉건 사회 속에서 변화해 가는 여성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억압된 여성의 분노는 드러나지 않는다.

15 세요 각시는 자신의 공을 몰라주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는 규중 부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 ‘절차탁마(切磋琢磨)’는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상황에는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씹임.’을 뜻하는 ‘절치부심(切齒腐心)’이 어울린다.

16 <보기>는 유씨 부인이 쓴 「조침문」으로, 바늘을 의인화하여 쓴 글이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농락과 비단에 수를 놓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옷감을 누비고 호고 감치고 박고 공그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상이 바늘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글의 세요 각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나)에서 허리띠는 얼룩무늬 악어가죽이나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된 예쁜 허리띠에게 밀려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즉 허리띠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18 허리띠의 주인은 살이 썩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은 허리띠는 더 이상 입으로 꼬리를 잡지 못하게 될까 봐 고민하고 있다. 허리띠는 자신이 주인의 허리둘레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 세상과 만나는 독서



(1) 사회 분야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70~175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7 동일한/같은, 지불 용의 가격 08 ⑤ 09 ④ 10 ⑤
11 ②

01 처음-①에 의하면 포그는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그날 저녁, 고향한 지 만나절도 안 된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02 포그는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하였으나, 영국 신문에서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던 것과 달리 80km 정도의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오답 풀이 ① 포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똑같은 온도의 물로 면도를 하던 사람이지만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것이 위기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포그 일행이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한 것은 위기가 아닌, 좋은 일에 해당한다.

③ 이 글에서 영국 육군 준장과 파스파르투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인도 횡단 철도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코끼리를 생각했던 포그 일행은 코끼리를 이용하는 가격을 두고 코끼리 주인과 흥정하느라 갈등을 빚었을 뿐, 코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03 중간 1-④에 따르면 파스파르투는 주인인 포그가 시간당 40파운드를 주고 빌리려던 코끼리를 무려 2,000파운드에 사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파스파르투가 코끼리 대신 다른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중간 1-④에서 코끼리 주인은 탐욕에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끼리 가격을 최대한 비싸게 받는 것이다. 중간 1-⑤에서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기 때문에 제값의 스무 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사겠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포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일주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05 브라만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뻔한 것은 포그 일행이 아니라 아우다 부인이다.

06 중간 2-①에 따르면 포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 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갔다고 하였다.

07 중간 2-③에서는 상품의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표를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우푼값으로 몇백 원을 지불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광도 있다고 하였다.

08 중간 2-①에 따르면 지불 용의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불 용의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② 지불 용의 가격이 높을수록, 시장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 잉여는 크게 발생한다.
 ③ 지불 용의 가격은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판단하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④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지불 용의 가격은 변화할 수 있다.

09 시장에서 사과와 가격이 300원에 책정되었다면 지불 용의 가격이 1,500원이었던 A 소비자는 1,2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고, 지불 용의 가격이 1,000원이었던 B 소비자는 7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가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보다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중간 2-⑤에 따르면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 오답 풀이** ① 하나의 상품에 대한 모든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판매자가 지불 용의 가격보다 낮은 시장 가격을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받는다면, 시장 가격보다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과 관계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더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다.
 ④ 공급자가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을 받으면 소비자는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다.

11 끝-①에 따르면 포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금전적 소득을 거의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쓴이는 끝-②에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했던 것

가지 체험과 아우다 부인과의 인연을 포그가 얻은 소중한 이익이라고 표현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76~179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7 지불 용의 가격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이고,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이며, 지불 용의 가격과 소비자 잉여는 비례 관계에 있다. **08** ① **09** ④
10 ② **11** ②

01 이 글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잘 알려진 소설 속 주인공의 행동을 바탕으로 소비자 잉여라는 경제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다.

02 (라)에 따르면 홍콩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으나, 일본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놓치고 만다. 포그는 계획을 변경하여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상하이로 가는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하고, 그곳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타게 된다.

03 (나)에서 포그는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포그가 어떻게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포그는 기차와 코끼리, 배, 썰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② 포그는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에 휩쓸리고,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다.
 ③ 포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 클럽 홀에 들어서며 내기에서 이겼다.
 ④ 포그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사서 인도의 밀림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04 우표 한 장에 대한 ㉠의 지불 용의 가격은 몇백 원이며, ㉡의 지불 용의 가격은 최대 수천만 원이다. 따라서 ㉠에 비해서 ㉡이 우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마)에서 교통수단에 대한 포그의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하였다(㉠). 하지만 (바)에서 일정에 맞을 때에는 포그도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였다(㉡). 즉, 포그는 일정에 맞을 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06 (다)에서 소비자 잉여는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② 같은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라 할지라도 소비자마다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도 다를 수 있다.
 ③ (다)에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④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금액이므로, 지불 용의 가격과 시장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없다.

07 (가)에서 지불 용의 가격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며,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지불 용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지므로 지불 용의 가격과 소비자 잉여는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08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이 반영하고 있는 가치나 이념, 내용이나 자료, 정보의 표현 방법, 그림이나 사진, 표, 그래프 등의 제시 방법이 타당하고 믿을 만하며 공정한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하지만 ①에서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닌, 글 속에 등장하는 앨프리드 마셜의 주장이므로 ①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글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③, ⑤ 글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의 표현 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④ 글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가 독자에게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09 포그는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얻은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지만,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수많은 경험을 했으며, 아우다 부인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포그처럼 우리도 여행을 떠나면 여행에 든 경비보다 값진 무엇인가를 얻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④의 반응이 적절하다.

10 (나)의 그래프에 따르면 A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1,500원이고(㉟),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1,000원이다(㉠).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 소비자는 1,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고(㉡), B 소비자는 5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된다(㉢). 또한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 소비자는 5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고(㉣), B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㉟~㉣ 값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㉟>㉠=㉡>㉢=㉣'으로 나타낼 수 있다.

11 소비자들은 하나의 물건을 살 때보다 여러 개의 물건을 살 때 물건 하나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는 지불해야 하는 총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2) 문화 분야의 글 읽기



본문 182~185쪽

내용 확인 문제

-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⑤
07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를 분배하고,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01 서론-②에서 다양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었으며,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인식과 가치, 욕망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문화보다 뛰어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④는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02 본론 1-①에서 미얀마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큰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03 본론 1-②는 친족 중심 사회에서 지위 경쟁이나 과시,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예를 소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성대한 의례를 치르는 친족 중심 사회의 예로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 문화권이 자원이 풍부한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② 본론 1-②는 친족 중심 사회에서 성대한 의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과는 관계가 없다.
 ③ 성대한 의례를 치르는 것은 자신의 위세를 유지하거나 지위 경쟁을 하거나 과시를 하는 등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성대한 의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지는 알 수 없다.

04 본론 1-③에서 글쓴이는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05 본론 2-②에서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과거에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06 돼지의 수가 증가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첼바가 마링족에 관한 설명이다. 이슬람교도는 돼지가 중동 지방에서 이동 생활을 함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기를 수 없고, 돼지고기가 선모충증이나 탄저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

07 챔바가 마링족은 약 12년을 주기로 돼지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카이코 축제를 여는데, 이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를 분배하고,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86~189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② 05 (친족 중심 사회에서 집단의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이유는)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서이며,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06 ④
07 ④ 08 ① 09 ② 10 ② 11 ②

01 이 글은 종교적인 지출을 합리적이라 여기는 미얀마 사람들과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친족 중심 사회의 예를 소개하며, 다양한 문화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02 (마)에서 글쓴이는 (가)~(라)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문화의 합리성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고, 문화는 다양한 환경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뒤에 밝히고 있다.

③ (다)와 (라)에서는 다양한 소비문화를 보여 주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에서 각 문화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④ (다)와 (라)에서는 미국의 인류학자 스피로와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며 다양한 소비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3 (라)에서 친족 중심 사회에서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쓰는 소비문화는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마)에서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04 (다)에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례(ㄱ)나 승려를 위한 만찬(ㄴ), 탑 쌓는 일(ㄷ)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를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ㄷ. 미얀마 사람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ㄹ. 성대한 잔치를 치르며 혼례를 치르는 것은 친족 중심 사회이다.

05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06 <보기>의 학생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④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연구 결과와 카이코 축제를 연구하고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라고 결론 내린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문화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다는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08 (사)에서 글쓴이는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이라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09 챔바가 마링족이 카이코 축제 기간에 대부분의 돼지를 잡아 식량으로 활용하고, 남은 돼지를 전쟁의 제물로 바치고, 조상 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돼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다.

10 ㉠과 ㉡ 모두 음식 금기를 가지고 있지만, 음식 금기를 지키는지 여부로 세계를 문명과 야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에만 해당된다.

오답 풀이 ① ㉠에게 소는 비료와 우유, 가죽,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에게 돼지는 선모충증이나 탄저병을 유발하고,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③ ㉠은 소에게서 비료와 우유, 가죽, 노동력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소를 어느 하나 낭비하지 않고 활용한다. 하지만 ㉡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돼지를 키우지도 않으므로, 전혀 활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 따르면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과 ㉡이 지키는 종교적 음식 금기의 이면에는 생태학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였다.

⑤ ㉠은 암소를 숭배하여 소고기 금기를 지키고 있으며, ㉡은 돼지를 혐오하여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11 <보기>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적 관습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돼지를 도살하는 축제를 벌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92~199쪽

- 01 ⑤ 02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03 ⑤
04 ③ 05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녔다. 06 ①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③ 12 ②
13 ⑤ 14 ㉠: 낮아짐, ㉡: 높 15 ② 16 ③

01 서론 1-①에서 케냐 사람들은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한 고원 지대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다고 하였다. 또한 보존림에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존림을 가꾼 것은 아니다.

02 서론-②에 따르면 키쿠유 사람들은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나무를 베었다.

03 본문 1-①에 따르면 키쿠유 사회에서는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고, 그 아래에서 제의를 지냈다.

오답 풀이 ①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본문 1-①에서 많은 공동체에서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여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물을 바쳤다고 하였으나, 본문 1-③에서는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에서 백단향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했다고 하였으므로, 많은 공동체에서 무화과나무에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화과나무를 성스럽게 여긴 것은 키쿠유족에 해당한다.

③ 키쿠유족이었던 글쓴이는 어렸을 때 성스럽게 여기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던 어머니와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④ 여러 그루의 무화과나무 가운데 하나를 정해 제의를 올렸다고 했지만, 그 나무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04 본문 1-②~③에는 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나무뿌리가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또한 나무나 열매는 약재나 식량, 건축 재료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무가 사람을 대신하여 부족에서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5 본문 1-④에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키쿠유족은 나무 아래에서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때 부족의 어른이 쥐고 있는 시이기나무 막대는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라고 하였다.

06 글쓴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사펠리나무가 한순

간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무척 소중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07 ㉠에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무의 신비로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며, ㉡에서는 나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08 글쓴이는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자연을 사랑할 수 있고, 자연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가 중시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경험’이지 ‘지식’이 아니다.

09 글쓴이는 베네치아의 민중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았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이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도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에 번창하고 부유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글쓴이는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중이라고 하였다.

10 글쓴이는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골목이나 집들이 좁고,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산마르코 광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공원이나 광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여정 1-①에 따르면 글쓴이는 베네치아의 민중들을 현명하다고 평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에 독특한 성향을 지닌 베네치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여정 1-①에 따르면 인근 지역이 암흑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베네치아의 민중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번창하고 부유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의 뜻을 지닌 ‘필연적인’이다.

오답 풀이 ① ‘우연한’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로운’의 의미이다.

③ ‘예상외의’는 ‘미리 생각하여 두거나 준비하지 못한 일의’의 의미이다.

④ ‘당혹스러운’은 ‘정신이 헛갈리거나 생각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데가 있는’의 의미이다.

⑤ ‘불가사의한’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아찔한’의 의미이다.

13 무라치는 리도라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돌 블록으로 쌓고 있는 방벽이다. 썰물 때에도 전함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설한 것은 운하이다.

14 여정 2-②에는 베네치아가 탄생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 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고, 인간은 기술을 활용하여 썰물 때에만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했다.

15 여정 2-④에 따르면 글쓴이는 인간이 만든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글쓴이는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작은 마을이 침수되고(㉡), 소통로가 막혀 버리며, 리도가 섬으로 변하고(㉢), 리도 배후의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카스텔로와 키오자는 리도가 바닷물을 막고 있을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곳이다.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어도 두 도시가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ㄹ. 밀물이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이 하루에 두 번씩 나가는 것은 항상 똑같이 되풀이되는 자연의 법칙이다.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어도 자연의 법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16 글쓴이는 여정 2-④에서 인간은 자연을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했으며, 자연이 이를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③이 글쓴이의 자연관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00~203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경험을 한다. /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다. 06 ⑤
07 ② 08 ⑤ 09 ⑤ 10 ② 11 ⑤

01 글쓴이는 나무를 보호하는 케냐 사람들의 사례와 사펠리나 무가 베어지는 광경을 본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02 (가)에서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케냐의 고원 지대에 보존림을 가꾸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또한 영적인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다.

04 글쓴이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사는 강건한 유

기체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05 글쓴이는 (라)에서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자연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06 〈보기〉에서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자연관을 가진 사람은 나무가 살아 있기보다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한 ⑥의 '사람들'이다.

오답 풀이 ① ②의 '케냐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딸감을 구하고,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을 대지 않는 등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② ⑥의 '키쿠유 사람들'은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③ ⑦의 '사람들'은 나무와 숲에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④ ④의 '나'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나 자신의 어떤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07 이 글은 기행문으로, 방문한 날짜와 장소, 그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 등이 나타나 있다.

08 (나)에서 베네치아인들은 조류와 상관없이 전함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고 하였다.

09 글쓴이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이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이지,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 토지를 더 넓혀 번창하고 부유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10 (나)에서 글쓴이는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하여(㉣) 건설 중인 무라치라고 하는 거대한 방벽을 보았다(㉤). 또한 글쓴이는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을 생각하며 베네치아를 이룩한 옛사람들의 지혜를 느꼈다(㉥).

오답 풀이 ㉢ 리도가 섬으로 변하는 것은, 글쓴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 글쓴이는 베네치아인들이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하여 베네치아를 잘 보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 베네치아인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개척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11 〈보기〉는 홍수와 해안 침식에 의해 베네치아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베네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204~209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③
 07 ④ 08 ④ 09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 ③ 11 ④ 12 ④ 13 ② 14 ㉠은 '리도'라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15 ③ 16 ④

01 이 글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잘 알려진 소설 속 인물 포그의 행동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경제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02 (다)에서 포그는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의 스무 배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코끼리를 살 것이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포그는 코끼리 주인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끼리를 산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포그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고,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②, ③ 포그는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다 부인을 구해 준다. 이는 포그가 호의를 베푼 것일 뿐, 아우다 부인이 훗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⑤ 인도 횡단 열차가 완전히 개통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은 육군 준장이 아니라 영국 신문이다.

03 현재 상품의 가격은 5,000원이다. 상품의 가격을 5,000원 올려서 판다고 하면 상품의 가격은 10,000원이 된다. 철호의 지불 용의 가격은 15,000원이므로 상품의 가격이 10,000원이어도 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지혜는 지불 용의 가격을 10,000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10,000원이어도 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을 5,000원 올리면 철호만 상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철호의 지불 용의 가격은 15,000원, 지혜의 지불 용의 가격은 10,000원, 민규의 지불 용의 가격은 5,000원이므로 철호의 지불 용의 가격은 세 사람 중 가장 높다.

② 민규의 지불 용의 가격은 5,000원이고, 상품의 가격 또한 5,000원이다.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에서 상품의 가격을 뺀 금액이므로, 민규는 상품을 사도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다.

③, ④ 상품의 가격이 5,000원이므로 철호의 소비자 잉여는 10,000원이고, 지혜의 소비자 잉여는 5,000원이며, 민규의 소비자 잉여는 없다. 따라서 가장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것은 철호이다.

04 코끼리 주인은 포그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포그가 코끼리를 살 때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지도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포그는 코끼리를 2,000파운드에 구입하였으므로, 코끼리에 대한 포그의 지불 용의 가격은 2,000파운드 이상이다.

②, ③, ④ (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5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에게 총액 대비 개당 가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이 사게 할 경우, 물건의 개당 이윤은 적어지지만 기업의 총 이윤은 늘어날 것이다.

06 (나)와 (사)에는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에는 그 사회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07 (다)에서 소는 인도인들에게 노동력, 비료, 우유, 가죽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를 사육하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고기 금기가 생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③, ⑤ (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8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혐오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따라서 신성한 동물인 돼지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말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9 글쓴이는 (사)에서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10 ㉠의 '일으키다'는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번성(繁盛)시키다'와 바꾸어 쓸 수 없다. '번성(蕃盛)시키다'보다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유발(誘發)하다'가 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의 의미를 지닌 '생각하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② ㉢의 '지키다'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키다.'의 의미를 지닌 '준수(遵守)하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의 '옮기다'는 '병 따위를 다른 이에게 전염시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염(傳染)시키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의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다.'의 의미를 지닌 '내포(內包)하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1 힌두교도들이 소고기 금기를 오랜 기간 지키고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배 계급이 처음에는 소고기를 먹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인도인들이 암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믿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이동하며 살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생태학적 합리성과 힌두교도 사이에서 점차 소가 신성한 동물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생기면서 암소 숭배와 소고기 금기가 만들어졌다.

⑤ 맥도날드가 인도에 진출할 때 소고기 대신 양고기나 닭고기, 물소고기를 사용한 햄버거를 팔기로 한 것이 인도인들이 소 숭배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2 (가)~(다)의 글쓴이는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의 자연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나무를 동반자로 대하고 있고, (라)에서는 바다를 맞서야 하는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

② (다)에서는 자연을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고, (마)에서는 인간이 이미 점유하여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③, ⑤ (가)~(다)는 자연의 신성성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고, (라)~(마)는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이룩한 베네치아에 대한 예찬을 주제로 한다.

13 (라)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여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 글에서 어떻게 수백 개의 섬을 점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자연과 직접 만남으로써, 즉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짐으로써 우리 영혼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가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무화과나무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하여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14 (라)에서 '무라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 중인 방벽이라고 하였고, '리도(㉡)'는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가)~(다)의 글쓴이는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ㄱ, ㄷ, ㅁ이 글쓴이와 유사한 자연관이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ㄹ. 인간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례이므로, (라)~(마)의 글쓴이와 유사한 자연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베네치아 사람들은 자연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에 적응하는 노력을 거듭하면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④의 대화는 적절하지 않다.

6.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



(1) 과학 분야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14~221쪽

01 ⑤	02 ④	03 ③	04 ㉠: 질량, ㉡: 중력	05 ⑤
06 ③	07 ④	08 ④	09 ⑤	10 ⑤
11 ④	12 ②	13 ③	14 ①	15 ④
16 ③				

01 처음-②에서 국내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보다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국가 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라고 서술할 뿐, 비유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처음-②에서 양궁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처음-①에서 양궁이 운동 경기로서 선을 보인 것은 1538년 영국 헨리 7세 때, 오락용으로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에서부터임을 알 수 있다.

② 처음-②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올림픽에서 개인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8연패를 성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③ 중간 1-①에서 양궁은 선수가 가만히 서서 화살을 잘 조준하여 과녁에 정확하게 맞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운동처럼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

⑤ 중간 1-①에서 화살의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예로 축구 경기에서 공을 띄우듯이 찰 때나 농구 경기에서 슛을 할 때를 언급하고 있다.

03 중간 1-②에서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하는 것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의 포물선 운동을 고려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04 중간 1-③에서 화살, 축구공, 농구공 등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지구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05 중간 1-⑤에서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지면과 4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물체를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 말한다. 하지만 그 증명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중간 1-⑧에서 화살은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공기를 가르며 날아갈 때 요동치며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중간 1-④에서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지며, 활시위를 세게 당길수록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간 1-⑥에서 양궁은 화살을 쏘는 곳에서 과녁까지의 거리에 따라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④ 중간 1-⑨에서 양궁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양궁 대회가 열리는 실외 경기장에서 부는 변화무쌍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양궁 선수가 직접 화살 깃을 적절한 무게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07 화살의 속도가 빠를수록 속도가 느린 화살에 비해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시간과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줄게 된다.

오답 풀이 ①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약할수록 초기 발사 속도가 느려지고, 화살이 과녁에 늦게 도달한다.

②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초기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화살이 과녁에 빨리 도달하므로, 속도가 느린 화살과 비교했을 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③ 화살의 속도가 느릴수록 속도가 빠른 화살보다 과녁에 늦게 도달하여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⑤ 중력의 영향으로 화살이 낙하하는 시간이 길수록 화살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는 길어진다.

08 물체를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결론의 전제는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를 45도로 던져도 가장 멀리 날아가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양궁 경기를 실내 경기장에서 하더라도 실내에 공기가 있는 한, 공기의 저항이 없을 수 없다.

② 화살 뒷부분에 화살 깃을 다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의 영향력을 없앨 수는 없다.

③ 양궁 선수들은 과녁까지의 거리에 따라 발사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⑤ 발사 각도가 다르다면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므로 도착 지점도 달라질 것이다.

09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에는 각각의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빼서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각각의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

10 중간 2-①에 따르면 오조준은 화살을 과녁 중앙에 맞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지점을 향해 조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오조준의 목적은 과녁 중앙에 화살이 꽂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 D는 과녁 중앙보다 왼쪽 위에 있으므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위에서 아래로 향할 때 D를 향해 오조준하면 화살이 바람의 영향으로 과녁 중앙에 꽂히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에는 과녁의 중앙이 아닌 왼쪽을 향해 오조준해야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과녁 중앙에 꽂히게 된다.

②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에는 A를 향해 오조준해야 화살이 바람의 영향으로 과녁 중앙에 꽂히게 된다.

③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위로 향할 때에는 C를 향해 오조준해야 화살이 바람의 영향으로 과녁 중앙에 꽂히게 된다.

⑤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서 아래로 향할 때에는 E를 향해 오조준해야 화살이 바람의 영향으로 과녁 중앙에 꽂히게 된다.

12 화살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을 때 두 힘의 합력은 화살의 힘과 바람의 힘을 더한 값이다. 그러므로 합력은 각각 두 힘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바람의 힘이 커진다면 합력도 커진다.

오답 풀이 ① 화살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합력은 화살의 힘과 바람의 힘을 더한 값이므로 화살의 힘이 커지면 합력도 커진다.

③ 바람의 힘에 의해 화살에 작용하는 합력이 커지므로 화살이 속도가 빨라져 더 빨리 과녁에 도달할 것이다.

④ 화살의 진행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은 화살의 기존 진행 방향과 동일하다.

⑤ 화살의 힘에 바람의 힘이 더해졌으므로 화살의 힘보다 합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3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는 힘의 합성 중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방향이 같거나 나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14 두 힘이 반대 방향일 때 합력 F의 값은 F_1 과 F_2 중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것인데, 그 값이 항상 F_1 과 F_2 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F_1 이 10이고 F_2 가 8이라면 합력 F는 2이므로 중간값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F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이므로, 두 힘을 더한 값보다는 항상 작다.

③ 두 힘이 같다면 두 힘의 합력은 하나의 힘에서 다른 힘을 뺀 0이 되므로, 물체는 이동하지 않는다.

④ 두 힘이 반대 방향일 때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의 값 중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이다.

⑤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물체는 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15 두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경우 두 힘이 클수록, 두 힘이 작용하는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힘의 합력이 커지므로 두 힘의 값이 가장 크고 각이 작은 ④의 경우가 합력이 가장 크다.

16 화살과 바람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면 두 힘을 이웃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간다. 이때 합력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22~225쪽

- 01 ⑤ 02 ⑤ 03 ③ 04 양궁은 실외에서 치뤄지는 경기이므로 화살이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05 ②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① 11 ④

01 이 글은 양궁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로,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2 (라)에서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가 45도인 것은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임을 알 수 있다.

03 (라)에 제시된 그림에 따르면 물체가 날아가는 거리는 발사 각도(㉠)가 45도가 될 때까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다 발사 각도가 45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물체가 날아가는 거리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사 각도가 클수록 멀리 날아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초기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화살이 과녁에 빨리 도달하고, 초기 발사 속도가 느린 화살에 비해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②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진다.

④ 발사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발사 각도는 과녁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조절한다.

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 궤적이 달라진다.

04 양궁은 실외에서 하는 경기이므로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더라도 선수의 의도와 다른 지점에 화살이 꽂힐 수 있다.

05 이 글은 양궁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보기>는 스포츠에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포물선 운동의 사례로 축구 경기와 농구 경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기>는 스포츠에 활용된 과학 기술의 사례로 육상 경기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가)에서 양궁의 기원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④ 이 글은 '화살, 축구공, 농구공 등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기의 저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은 화살의 뒷부분에 화살 깃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이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⑤ <보기>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론을 펼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06 이 글의 끝 부분에서 양궁 속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07 이 글에서는 양궁 선수들이 단순히 운동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운동 실력보다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양궁 선수들의 오조준은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다.

② 힘의 합성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같을 경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④ 양궁 선수들은 실외 경기인 양궁의 특성상 바람에 대비하여 평소 오조준 연습을 한다.

⑤ 바람이 부는 양궁 경기장에서는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진다. 이때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가므로, 양궁 선수들은 이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오조준해야 한다.

08 C는 과녁 중앙보다 왼쪽 아래에 있으므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아래에서 위로 향할 때에 C를 오조준하면 화살을 과녁 중앙에 맞힐 수 있다. 또한 원래 쏘려던 힘보다 약하게 화살을 쏘야 하는 것은 바람의 힘이 화살의 힘에 더해졌을 경우이므로, 바람이 선수의 뒤에서 앞으로 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09 두 힘의 합력이 가장 큰 경우는 두 힘의 방향이 '같은 때'로, 이때의 합력은 F_1 과 F_2 를 합한 9N이다. 두 힘의 합력이 가장 작은 경우는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로, 이때의 합력은 힘의 크기가 큰 F_1 의 값 6N에서 힘의 크기가 작은 F_2 의 값 3N을 뺀 값인 3N이다.

10 상자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과 상자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 경우 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므로 상자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중력보다 커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나란하지 않은 힘들의 합력이 작용할 경우, 힘이 작용하는 사이의 각도가 작을수록 합력이 커진다. 따라서 말들이 넓게 퍼지지 않고 모여서 달리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줄다리기 시험에서 무승부가 난 것은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④ 한 사람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이 뒤에서 리어카를 밀 때에는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게 바뀌는 경우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힘이 작용하는 경우이다. 움직이는 물체와 같은 크기의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다.

11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에는 역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고, ㉡에는 순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기술 분야의 글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28~233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③ 10 ④ 11 ④

01 처음-①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인간과 인공 지능의 대결, 문화와 과학의 대결이라는 수식어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바둑을 즐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중계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였다.

02 처음-②에 따르면 바둑은 게임의 속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바둑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간 1-①에서 알파고는 무작위로 바둑돌을 대입해 보며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03 알파고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활용한 이유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알파고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대국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

04 중간 1-②에서 일반 컴퓨터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면서 ‘예’ 또는 ‘아니요’의 결과를 내놓는 데에 반해 딥 러닝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린 뒤 그것을 종합하여 결과를 내놓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딥 러닝에서 일반 컴퓨터의 연산 방식과 다층 구조의 연산 방식 중 효율적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5 중간 1-③에서 기계 학습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 지능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구글이 알파고에 도입한 딥 러닝이 기계 학습의 한 종류이지, 기계 학습이 딥 러닝의 한 종류는 아니다.

② 중간 1-③에서 개발자들조차 딥 러닝의 한 종류인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기계 학습의 수준을 정해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간 1-④에서 인공 지능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④ 중간 1-⑤에서 인공 지능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그 성과가 반복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06 중간 1-③에서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는 알파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 바둑 기사의 대국 기보 3,000만 건을 입력하였으며, 이후 알파고가 입력된 기보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며 학습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알파고는 경기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아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07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딥 러닝의 활용 분야는 자동 음성 인식, 이미지 분류 및 저장, 제약 산업, 마케팅 분야 등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를 선택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은 딥 러닝을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08 이 글에 인공 지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의 영역을 상당 부분 대신할 것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끝-②에서 글쓰이는 앞으로 알파고를 뛰어넘는 수많은 인공 지능 딥 러닝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들이 인간의 영역을 상당 부분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③ 끝-②에서 글쓰이는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을 통제해야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 발전의 결과물로서 인공 지능을 이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끝-①, ②에서 글쓰이는 알파고의 성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으며, 알파고의 기계 학습 능력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하였다.

⑤ 중간 2-②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는 딥 러닝을 바탕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 그것을 다음 연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하였다.

09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 지능이 단련되므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입력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공 지능은 기존에 입력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 지능이 단련되므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② 자율 주행 자동차는 '횡단보도가 없다(주행이 가능한 상황)'는 정보와 '도로 가운데 사람이 있다(멈추어야 하는 상황)'는 정보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판단을 내릴 것이다.

④, ⑤ 기존에 입력된 정보는 물론 운행 경험이 다시 참조할 자료가 되어 다음 운행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인공 지능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단련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0 글쓴이는 인간이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만, 인공 지능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11 인공 지능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의 답만 내리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자료를 탐색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34~237쪽

- 01 ③ 02 ② 03 바둑은 게임의 속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여서 아무리 우수한 슈퍼컴퓨터일지라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4 ② 05 ④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③ 12 ①

01 이 글에는 알파고에 대국 기보 3,000만 건을 입력했다는 내용과 알파고가 무려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바둑을 학습한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개발자의 말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개발자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간접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딥 러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 컴퓨터의 연산 방식과 대조하고 있다.

② 알파고, 딥 러닝, 기계 학습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언급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알파고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전에 체스 경기와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간을 이겼던 인공 지능의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02 (나)의 중심 내용은 '예상을 뒤엎은 알파고의 승리' 또는 '알파고의 승리가 준 충격'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바둑 고수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03 알파고 이전에도 인공 지능 체스 프로그램 '딥블루'나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공 지능 '왓슨'이 인간을 이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여서 아무리 우수한 슈퍼컴퓨터일지라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파고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04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며 결과를 내놓는 것'은 인공 지능이 아닌 일반 컴퓨터의 연산 방식을 설명한 것이며,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공 지능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이다.

05 알파고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통해 수많은 선택지 중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이 반복됨으로써 대국이 유리하게 풀린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알파고에 도입된 딥 러닝은 기계 학습의 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알파고가 일반적인 기계 학습과 차별화된 딥 러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마)에서 알파고의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③ 알파고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다.

⑤ 3,000만 건의 기보는 알파고가 스스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입력한 것이다.

06 (마)에 따르면, 딥마인드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 이유는 알파고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07 ㉠의 '벌이다'는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의 의미이므로 ⑤의 '벌이다'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② 밑줄 친 '벌이다'는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의 의미이다.

③ 밑줄 친 '벌이다'는 '가게를 차리다.'의 의미이다.

④ 밑줄 친 '벌이다'는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의 의미이다.

⑤ 밑줄 친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의 의미이다.

08 글쓴이는 알파고에 도입된 딥 러닝 기술의 개념과 활용 분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인공 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될 미래와 이에 대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9 (가)에서 알파고가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바둑을 학습한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 학습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10 (다)에서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 지능이 단련된다고 하였으므로 참조할 자료를 적게 제공할수록 창의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알파고는 바둑 프로그램으로, 인공 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② (마)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 지능을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 ④ 인공 지능이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인공 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⑤ 인공 지능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예술 분야에도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11 스마트폰에 미리 입력해 둔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기능일 뿐, 인공 지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12 이 글은 알파고에 입력된 대국 기보가 3,000만 건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학생 비율, 현재의 직업 중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직업의 비율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여 인공 지능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으나, <보기>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딥 러닝을 활용하는 분야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기>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는 인공 지능과 함께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직업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이 글은 자동화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인간이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공 지능은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뿐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서는 인간의 통제력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3) 다양한 매체 자료 읽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40~247쪽

- | | | | | | |
|------|--------------|------|------|------|------|
| 01 ① | 02 ② | 03 ③ | 04 ⑤ | 05 ② | 06 ⑤ |
| 07 ④ | 08 노블레스 오블리주 | 09 ③ | 10 ③ | 11 ③ | |
| 12 ⑤ | 13 ⑤ | 14 ④ | 15 ⑤ | 16 ③ | |

01 전반부-①에서 프랑스 왕이 칼레 시로 향하던 군사들의 발길을 돌리자, 칼레의 시민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끝까지 싸울 것을 선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전반부-①에서 칼레의 시민들은 에드워드 3세가 내건 조건에 굴욕감, 안도감, 자괴감, 수치심, 절망감 등을 느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 조건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전반부-②에서 왕의 측근인 월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섰고,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단호했던 에드워드 3세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했으므로, 월테 머네이 경이 왕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전반부-①에서 프랑스의 왕 필리프 6세가 칼레 시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고 명했다는 것에서 프랑스 왕의 군대가 영국군의 공격을 11개월이나 막아 냈던 칼레 시를 도와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전반부-②에서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의 목숨을 보장하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은 칼레 시의 지체 높은 사람들이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에드워드 3세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든 채로 걸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02 전반부-②에서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의 목숨을 보장하는 대신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이 희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03 에드워드 3세의 조건을 전해 들은 칼레의 시민들은 적에게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 시민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시민 여섯 명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패자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스타슈는 제비뽑기를 할 경우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하며 희생을 자원하였다. 시민들이 자신이 시민 대표로 지목되지 않기를 바라는 구차함을 느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04 전반부-③에서 외스타슈가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얼과 뉘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5 이 글의 종류는 기행문으로, 글쓴이는 로댕의 작품과 관련된 일화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③ 로댕의 조각상 「칼레의 시민」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독자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④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문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로댕의 조각상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6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왕비가 에드워드 3세를 설득하여 시민 대표들이 처형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로댕이 처형당한 여섯 명의 시민 대표를 기리기 위해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로댕이 조각상을 만든 것은 칼레 시가 그들이 보여 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로댕에게 기념상 조각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07 로댕은 시민 대표를 사회적 책무와 죽음의 공포 사이에서 고뇌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였는데, 후반부-②, ③을 통해 그 이유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 내고 끝내 자

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8 후반부-④에서 글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결핍되어 있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결핍이 공동체의 위기 시 국민이 단결되지 못한 채 더욱 흔들리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09 카드 뉴스는 전자 매체의 일종으로, 인쇄 매체에 비해 많은 사람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와 인쇄 매체 모두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② 카드 뉴스는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문자의 결합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④ 카드 뉴스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인쇄 매체의 특징이다.

⑤ 인쇄 매체는 한번 만들고 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전자 매체의 경우 인쇄 매체에 비해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10 우당 이회영의 가족들이 독립운동을 반대했다는 근거를 카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온 가족이 함께 만주로 갔다는 점에서 가족들 역시 우당 이회영과 뜻을 함께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1 이 카드 뉴스는 시각적 이미지와 문자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청각 자료가 삽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2 ⑥번 카드에서는 우당 이회영이 일본 정부의 회유를 거부한다는 내용에 어울리게, 인물이 손동작을 통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①번 카드의 제목은 육하원칙의 여섯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았다.

② ②번 카드는 우당 이회영의 가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③ ③번 카드는 우당 이회영 가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임으로, 인물들의 차림을 화려하지 않게 표현한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④ ④번 카드는 우당 이회영이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으로, 인물이 갈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3 이 카드 뉴스는 중요한 내용의 글씨를 다른 글씨보다 크게 하거나 다른 색으로 표현하였다(ㄴ). 또한 ⑭번 카드에서 우당 이회영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각 카드의 배열은 시간 순이 아닌 주제별로 되어 있다.
ㄷ. 각 카드는 내용에 따라 이미지와 글씨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14 이 카드 뉴스의 내용만으로는 ⑭번 카드에 인용된 우당 이회영의 말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인지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⑦번 카드에서 우당 이회영이 처분한 재산의 당시 가치와 오늘날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② ⑨번 카드에서 신흥 무관 학교에서 길러 낸 독립군의 수가 3,500여 명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⑫번 카드에서 우당 이회영이 조국 독립을 위해 관여한 독립운동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⑤ ⑪번 카드에서 우당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난과 형제들의 죽음을, ⑩번 카드에서는 우당 이회영이 겪은 고문을 제시하고 있다.

15 ⑧~⑩번 카드에는 우당 이회영이 만주에 세운 신흥 무관 학교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고, ⑫번 카드에는 신흥 무관 학교 설립 외에 우당 이회영이 참여한 독립운동이 나열되어 있다.

16 ⑦번 카드 내용에 따르면 우당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위해 처분한 재산은 당시 40만 원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48~251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⑤ 08 ④ 09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였다. / 사회 지도층으로서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10 ⑤
11 ① 12 ③

01 (마)에서 로맹이 조각상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의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로맹의 말을 간접 인용한 것이 아니다.

02 (나)에서는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 경이 왕에게 칼레의 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했음을 알 수 있고, (라)에서는 에드워드 3세의 아내 필리파 드 에노 왕비가 여섯 명의 시민 대표를 처형하지 말 것을 간청하여 시민 대표들이 목숨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사절을 보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으나, 칼레의 사절이 시민 대표의 희생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서 에드워드 3세가 시민 대표 여섯 명을 처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직접 지목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 따르면 프랑스 왕 필리프 6세는 영국군의 방어 태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칼레 시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 명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 따르면 백 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에서 칼레 시가 로맹에게 기념상 조각을 의뢰한 것은 188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칼레의 시민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마)에서 로맹이 완성한 조각상의 모습이 칼레의 시민들이 기대했던 당당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끝내 칼레의 시민들이 로맹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4 (나)에서 이미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여섯 명의 시민 대표 외에 나머지 시민들의 목숨은 보장하기로 했으므로, 외스타슈(㉔)가 다른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영국 왕을 설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칼레 시의 사례에서는 외스타슈를 비롯한 시민 대표들이 죽음을 각오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였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항상 죽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이 실천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킨다. ②의 사례 속 할머니는 훌륭한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7 오늘날 (나)와 같은 전자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가)와 같은 인쇄 매체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가)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고, (나)는 인터넷을 통해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전자 매체이다.

② (가)는 기록성, 보존성, 신뢰성이 높은 매체로 인식되지만 지면에 제약이 있다.

③ (나)는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08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금언은 결과적으로 시민 대표들이 처형이 되지 않은 극적인 결말을 글쓴이가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로, 외스타슈가 외칠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9 외스타슈와 우당 이회영은 모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10 (나)에서 우당 이회영의 가문은 대대로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였으므로, 독립운동을 통해 명망 있는 집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⑤번 카드에 따르면 우당 이회영은 가문의 모든 재산을 조국 독립을 위해 썼으며, 그 결과 가족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②, ③ ⑧~⑩번 카드에 따르면 우당 이회영은 전 재산을 들여 만주에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 길러 낸 3,500여 명의 독립군은 만주 땅에 자리 잡은 독립 투쟁의 뿌리가 되었다.

④ ⑦번 카드에서 우당 이회영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값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나)의 카드 뉴스를 통해 우당 이회영이 자신의 가문과 가족, 재산 등을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나)는 그의 희생정신을 보여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㉔, ㉕, ㉖, ㉗은 모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의미하며, ㉘는 시민 대표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대상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문 252~257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화살 깃은 화살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화살을 회전시켜 비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04 ⑤ | 05 ④ |
| 06 ④ | 07 ⑤ | 08 ③ | 09 ⑤ | 10 ⑤ |
| 12 ④ | 13 ① | 14 ④ | 15 ④ | 16 ④ |

01 (라)에는 양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으로 공기의 저항,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2 (나)에서는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초기 발사 속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활시위를 약하게 당길수록 화살의 발사 속도가 느려지는데, 화살의 발사 속도가 느릴수록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낙하하는 시간이 늘고, 낙하하는 거리도 늘어난다고 하였다.

03 (라)에 따르면 화살 깃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요동치는 화살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04 바람이 선수 뒤편에서 불 때에는 화살이 날아가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지므로 원래 쏘려던 힘보다 약하게 화살을 쏘아야 한다. 그리고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불 때에는 목표 지점을 중앙보다 오른쪽 위쪽으로 조준해야 하므로 B를 향해 쏘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선수 정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에는 A를 목표로 원래 쏘려던 힘보다 강하게 쏜다.

② 바람이 선수 뒤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에는 A를 목표로 원래 쏘려던 힘보다 약하게 쏜다.

③ 바람이 선수 정면의 아래에서 위로 불 때에는 중앙보다 아래를 목표로 원래 쏘려던 힘보다 강하게 쏜다.

④ 바람이 선수 정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불 때에는 C를 목표로 원래 힘보다 강하게 쏜다.

05 ㉠과 ㉡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면 화살은 두 힘을 이웃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만큼의 합력으로, 대각선의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때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와 두 힘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과 ㉡의 방향이 같다면 화살에 가해지는 합력은 ㉠과 ㉡을 더한 값이므로, 바람이 없을 때보다 빨리 날아갈 것이다.

② ㉠과 ㉡이 반대 방향이라면 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므로, 화살이 앞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더 커야 한다.

③ ㉠과 ㉡의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화살이 앞으로 날아간다면 화살의 합력은 ㉠에서 ㉡을 뺀 값이므로, ㉠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⑤ ㉠과 ㉡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면 화살은 두 힘을 이웃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06 제시된 글은 기술 분야의 설명문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의 설득력과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다)에서 인공 지능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는 알파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 바둑 기사의 대국 기보 3,000만 건을 입력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 지능은 처음에 인간이 입력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인공 지능이 스스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08 (가)에서 바둑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알파고의 개발자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연승할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 따르면 알파고는 입력된 기보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며 학습했는데, 그 수준이 무려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학습한 수준이라고 한다.

② (나)에 따르면 딥 러닝은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여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가능하다.

④ (가)에 따르면 알파고는 무작위로 바둑돌을 대입해 보며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알파고가 검은 돌로 대결을 벌인다면 흰 돌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검은 돌을 두는 것이다.

⑤ (나)~(다)에 따르면 알파고는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경험을 쌓아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짜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09 (라)에서는 인공 지능이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짓는 영화 속 대화 장면을 인용하여 제시한다. 이는 인공 지능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10 이 글의 글쓴이는 인간이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 발전의 결과물인 인공 지능을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장래 희망을 포기해야 하

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보기>의 학생에게 ⑤와 같은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인공 지능은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왓슨 수준의 지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글쓴이는 인간이 인공 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의사의 꿈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③, ④ <보기>의 학생은 인공 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여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나은 인공 지능의 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개발자가 되는 것으로 꿈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마)에 따르면 유능한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알파고는 그 동안 바둑계가 쌓아 온 자산을 토대로 발전된 프로그램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공 지능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2 (가)에서는 “내가 죽으러 ~ 앞으로 나오시오.”라는 외스타슈의 말을, (나)에서는 “이루고 못 이루고는 ~ 가지 않는가.”라는 우당 이회영의 말을 인용하여 두 인물의 희생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나)에만 해당하는 표현 방식이다.

③ (가)에서는 ‘그들의 행동은 진정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글쓴이의 평가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서는 우당 이회영의 업적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13 (가)는 인쇄 매체이므로 기록성과 신뢰성이 높고(ㄱ),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ㄴ)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ㄷ. 인쇄 매체는 지면의 제약은 있으나,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ㄹ, ㅁ. (나)와 같은 전자 매체의 특징에 해당한다.

14 (가)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위기 시 국민이 단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흔들리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핍된 사회에 대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다고 하였다.

15 ㉠번 카드 뉴스에서 인물들이 빼곡하게 등장하는 사진을 넣은 것은 우당 이회영이 만주에서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3,500명에 이르는 많은 독립군을 길러낸 것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6 외스타슈를 비롯한 (가)의 시민 대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 죽음의 공포를 이겨 내고 희생을 자원했다는 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다. 따라서 ④의 외스타슈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교과서 수능 실전

교과서 수능 실전 01

본문 264~265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④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 **해제** 이 글은 밀의 견해를 중심으로 행복의 본질과 조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물질적 만족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본 벤담과 달리, 밀은 물질적 만족은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밀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 즉 자긍심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서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또한 밀은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행복으로 보았으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주제** 행복의 본질과 조건에 대한 밀의 견해

구성

1문단	밀이 제시하는 행복의 정의
2문단	행복에 대한 벤담과 밀의 견해 차이
3문단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
4문단	밀이 제시하는 행복의 의미
5문단	자기 발전에 대한 밀의 두 가지 가정
6~8문단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행복의 본질	자긍심
행복의 조건	자립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
행복의 개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인간의 발전에 관한 두 가지 가정

-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이자 행복 그 자체임.
-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음.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은 행복에 대한 밀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글로서, 밀의 관점에서 행복이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표제로, '행복에 대한 밀의 이론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권위 있는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뿐 행복에 대한 일상의 체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③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는 언급하고 있으나 시대에 따른 행복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벤담과 밀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행복을 둘러싼 논쟁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벤담의 이론을 바탕으로 밀의 행복 이론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02 세부 정보 확인

밀은 물질적 만족이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므로 물질적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밀은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나열하면서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밀은 사람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긍심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한다.

⑤ 4문단에서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것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므로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능력, 곧 자립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불행을 피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바라는 것이므로, 1문단의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③ '남에게' 더 주려는 것은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인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산 정상'은 삶의 결과로, '산을 오르는 것'은 삶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나폴레옹의 격언은 '사치하는 생활'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사치하는 생활' 곧 물질적 만족은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04 정보 간의 관계 파악

감성이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감성이 이성의 힘이 작용할 때 발휘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이성에 의해 제어될 때 감성적 능력이 온전히 길러진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6문단에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7문단에서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발전시킨 감성적 능력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6문단에서 밀은 지적인 소양의 계발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8문단의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를 통해 ㉠과 ㉡은 모두 자기 발전을 이루게 함을 알 수 있고, 5문단의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이다.'를 통해 이들이 모두 행복에 도달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수능 실전 02

본문 266~267쪽

01 ④ 02 ⑤ 03 ③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타

• **해제** 이 글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행복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컴의 면도날'은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 낼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사고의 절약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행복 역시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에 있는 구체적 경험에 바탕을 두어 행복이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중심을 두고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의 경험, 그리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주제**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인 행복

• **구성**

1문단	심리학에서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가지는 의의
2문단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전복시키는 진화 생물학적 관점
3문단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의 의미
4문단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평가
5문단	'일반인의 합리주의'를 보여 주는 초콜릿 연구
6문단	행복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최근의 현상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

진화 생물학적 관점의 적용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함.

행복

-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님.
-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이 된 매우 구체적인 경험임.

가치 있는 삶

- 일반인의 합리주의가 반영됨.
-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가치 판단의 잣대가 됨.
-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함.
-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

행복한 삶

-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지가 판단의 잣대가 됨.
- 쾌락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음.

01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2문단에서 매슬로가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을 기본적인 욕구인 하위 욕구부터 자아 성취와 같은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까지 위계적 단계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슬로가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만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고 하였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천연의 행복은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쾌락으로서의 행복을 구체적인 경험과 구분하여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6문단에 따르면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들은 명분은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며,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같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이 가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하고 있다고 하였다.

02 전제 및 근거 추론

㉠의 '이런 사고'는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적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자아 성취를 위해 식욕과 같은 본질적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쾌락적 즐거움 외에도 얼마든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④ 3문단에서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닌 쾌락적 즐거움이 중심이 된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하였다. 또한 6문단에서 글쓰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생긴 결과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쾌락의 경험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사례 1의 추론 1이 성립하려면 '누군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타이어에 구멍을 뚫다.'라는 최소 두 가지의 가정을 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에서는 가정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이 진실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사례 1의 경우, 추론 1은 '누군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타이어에 구멍을 뚫다.'라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가정을 해야 하는 반면, 추론 2는 '타이어에 우연히 구멍이 뚫다.'라는 한 가지 가정만 하면 되므로 추론 2가 추론 1에 비해 진실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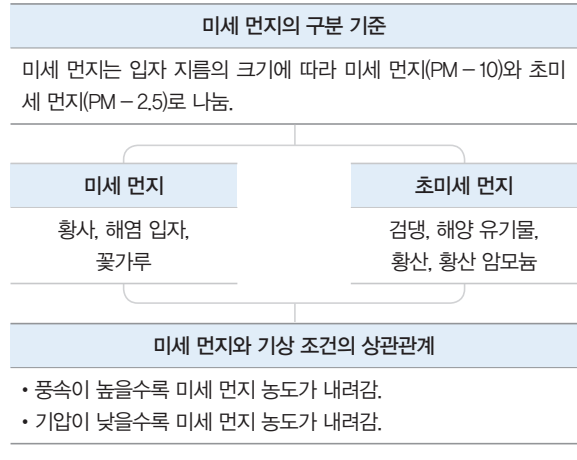
②, ④ <보기 1>에서는 가정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이 진실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사례 2의 경우, 추론 1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 추론 2는 '적군의 비행기가 날아왔다.', '고속도로 근처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는 최소 두 가지의 가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추론 1이 추론 2에 비해 진실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⑤ 임마누엘 칸트는 '오컴의 면도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은 가정이 많아질수록 진실일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진실로 밝혀질 확률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성

(가)	미세 먼지의 구분
(나)	미세 먼지의 종류
(다)	초미세 먼지의 종류
(라)	풍속과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마)	기압과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01 세부 정보 확인

이 글은 미세 먼지의 구분 기준과 종류, 기상 조건과 미세 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초미세 먼지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미세 먼지의 구분 기준은 설명하고 있으나, 이 글 전체에서 미세 먼지의 개념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라)에서 지난 20년간 미세 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던 때는 2012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글 전체에서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학생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02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은 PM-10에 해당하는 미세 먼지이고, ㉡은 PM-2.5에 해당하는 초미세 먼지이다. (가)에 따르면 최근에 미세 먼지보다 초미세 먼지가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 먼지로 초미세 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은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초미세 먼지이다.

④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 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이 주변의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과 ㉡의 농도 모두 낮아진다.

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의 지름은 80~100 μ m이고, ㉠의 입자 지름은 10 μ m 이하이며 ㉡의 입자 지름은 2.5 μ m 이하이다. 따라서 ㉠과 ㉡의 입자 지름은 모두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보다 작다.

03 정보 추론

(나)에서 봄철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황사가 날아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기압의 영향권인 겨울철에는 미세 먼지 농도

교과서 수능 실전 03

본문 268~269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①

미세 먼지의 실체

• **해제** 이 글은 미세 먼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한 글이다. 미세 먼지의 구분 기준과 종류, 기상 조건과 미세 먼지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미세 먼지의 종류는 그 입자 지름의 크기에 따라 미세 먼지(PM-10), 초미세 먼지(PM-2.5)로 나눌 수 있다. 미세 먼지에는 황사, 해염 입자, 꽃가루 등이 있고, 초미세 먼지에는 검댕, 황산, 황산 암모늄, 해양 유기물 등이 있다. 미세 먼지 농도는 기상 조건과 상관관계가 있다. 풍속이 높을수록 미세 먼지 농도가 내려가고, 기압이 낮을수록 미세 먼지 농도가 내려간다.

• **주제** 미세 먼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

가 올라가고, 저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에는 미세 먼지 농도가 내려간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의 내용을 통해 [A]는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황사를 동반하는 ‘봄’과 난방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임을 알 수 있고, [B]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는 ‘가을’과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난방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겨울이므로, [A]에는 겨울이 포함된다.

④, ⑤ 황사를 동반한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봄이므로, [A]에는 봄이 포함된다.

04 어휘의 의미

문맥상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를 구분하는 ㉠과 바꿔 쓰기에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눌.’을 의미하는 ‘분해(分解)할’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가를.’을 의미하는 ‘분류(分類)할’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문맥상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거나 함께 넣어지지.’를 의미하는 ‘포함(包含)되지’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문맥상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여.’를 의미하는 ‘축적(蓄積)되어’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문맥상 ‘뒤섞이어 한데 합해집니다.’를 의미하는 ‘혼합(混合)됩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문맥상 ‘신문이나 책자 따위가 널리 나뉘어 주어집니다.’를 의미하는 ‘배포(配布)됩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교과서 수능 실전 04

본문 270~271쪽

01 ③ 02 ② 03 ③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 **해제** 이 글은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경쟁의 필요성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쟁이 인간의 본능임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 하위징아, 토머스 홉스의 견해를 들어 뒷받침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경쟁을 꼽으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기반이 되는 경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경쟁의 필요성

• **구성**

1문단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과 경쟁의 밀접성을 주장한 하위징아
2문단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한 홉스
3문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경쟁
4문단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한 스미스
5문단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철학자의 견해 ①

인간이 경쟁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요한 하위징아

철학자의 견해 ②

경쟁심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한 토머스 홉스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경쟁

자본주의 경제의 바탕이 된 경쟁

이기심의 자유로운 발동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한다고 주장한 애덤 스미스

경제 분야에서 경쟁의 긍정적 결과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오면서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본주의

01 전제 및 근거 추론

2문단과 4문단에서 토머스 홉스와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경쟁심은 인간이 타고난 본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두 학자 모두 경쟁을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전제한 후에 토머스 홉스는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애덤 스미스는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의 경쟁 욕구가 공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내용은 토머스 홉스의 의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이 글에서 인간의 경쟁심이 억제당할 경우 초래될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④ 두 학자 모두 인간의 경쟁 욕구를 본능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린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토머스 홉스의 의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02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 1>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틀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면서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보기 2>는 청년층이 계층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의 반 이상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에서 <보기 1>의 글쓴이는 경쟁의 영역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보기 1>에서 글쓴이는 경쟁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필수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글쓴이는 1~2문단에서 경쟁을 인간의 본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 내용이다.

③ 글쓴이는 이 글의 5문단에서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가 축소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한 대화 내용이다.

④ <보기 1>의 글쓴이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 내용이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2문단에서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 내용이다.

03 어휘의 의미

㉠은 '그렇게 되게 하다.'라는 의미의 어휘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①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의 뜻이다.

② '책을 저술하거나 편찬하다.'의 뜻이다.

④ '돈이나 일 따위를 마련하다.'의 뜻이다.

⑤ '무엇이 되게 하다.'의 뜻이다.

교과서 수능 실전 05

본문 272~273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⑤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 **해제** 이 글은 놀이 기구의 활용 단계를 설명한 어느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나라 놀이터를 돌이켜 보았을 때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제점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뒤,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는 아이들이 재미없고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라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놀이터, 아이들이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주제** 오늘날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

• **구성**

1문단	흥미를 반영하지 못한 지루한 놀이터의 위험성
2문단	놀이터의 지루함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예
3문단	창의성과 안전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놀이터의 현실
4문단	놀이터에 대한 어른들의 편의주의적 사고의 문제점
5문단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과잉보호적 태도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우리나라 놀이터가 지닌 문제점의 원인 ①	지루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예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이용하는 사례

우리나라 놀이터가 지닌 문제점의 원인 ②	편의주의적 사고가 적용된 현상
놀이터에 대한 어른들의 편의주의적 사고	고무 소재의 놀이터 바닥을 고집하는 이유
우리나라 놀이터가 지닌 문제점의 원인 ③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과잉보호적 태도	

01 세부 정보 확인

글쓴이는 우리나라 놀이터가 정형화되어 창의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이 대부분 탄성 고무 칩인데, 이는 다른 소재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소재의 단점으로 한여름에 이 때문에 열기가 위로 솟구쳐 놀이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을 뿐, 이 소재가 한여름에 아이들의 부상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놀이터 중앙의 조합 놀이대 1개와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 2개, 고무 매트나 고무 칩 포장인 된 바닥으로 정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고무 매트나 고무 칩 바닥을 고집하는 까닭이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어른들의 편의주의 태도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탄성 고무 칩 바닥은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껍질인 바크와 견주었을 때 안정성 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반달리춤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 기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정보 추론

문맥을 고려했을 때 글쓴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지루한 놀이터밖에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놀이 단계는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한 단계 발전한 놀이 단계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아이들이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가 놀이 기구 본래의 기능대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선,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놀이하는 단계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답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 놀이 기구의 본래 기능에만 충실하게 놀이하는 단계는 지루한 놀이 수준에서 나아간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③ 글쓴이는 이 글에서 눈에 보이는 안전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어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글쓴이는 2문단에서 아이들의 지루함과 싫증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며 놀이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놀이 단계가 놀이터 및 놀

이 기구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놀이 기구 없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어른들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글쓰이의 의도 및 관점

〈보기〉는 안전 규정대로 만들었을 학교 운동장과 공공 놀이터에서의 아이들 부상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지 안전 규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을 집 마당 놀이터, 자가 제작 놀이 시설의 사고율이 더 낮았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즉 완전히 부상을 차단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는 아이들의 놀이 경향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 글의 글쓴이가 언급한 반달리즘 경향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는 ④의 반응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실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의 글에는 집 마당 놀이터에서 어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파악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글쓰이의 관점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 ③ 〈보기〉의 글에는 창의적인 놀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아이들의 반달리즘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부상에 노출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다.

04 어휘의 의미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의 의미를 가진 것은 ‘문장’이다. ‘명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반영’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 ② ‘응용’은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을 의미한다.
- ③ ‘조합’은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을 의미한다.
- ④ ‘양산’은 ‘많이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

교과서 수능 실전 06

본문 274~275쪽

01 ⑤ 02 ② 03 ③

나는 누구인가

- **해제** 이 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흄, 사르트르, 부버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에 대해 살피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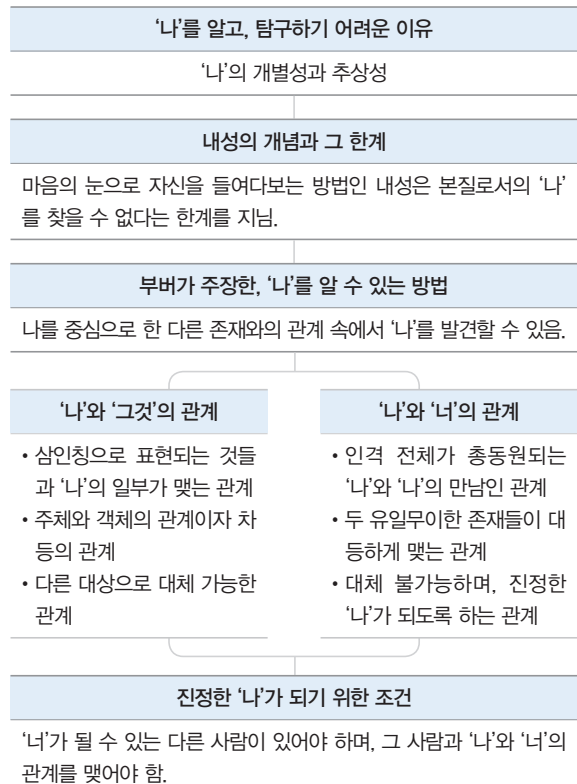
나의 방법으로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성을 소개하고, 뒤이어 내성의 한계를 지적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흄은 내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을 살피면 ‘나’의 경험만이 나타나는 한계가, 사르트르는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부버는 ‘나’를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관계는 ‘그것’과의 관계 및 ‘너’와의 관계라고 말한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국한적이고 유한적이며,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라는 속성을 지닌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며 그때 파악하는 ‘나’가 진정한 ‘나’라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버의 견해는 ‘그것’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구별되게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의 것인 동시에 인격 전체로서의 속성을 지님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존재

구성

(가)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 믿었던 내성과 그 한계
(다)	부버가 주장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
(라)	‘나’와 ‘그것’, ‘나’와 ‘너’의 관계의 특징
(마)	인간에 대한 지식과 구별되는 ‘나’에 대한 지식
(바)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조건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나)에서는 '나'를 찾는 방법인 내성의 개념과 그 한계를 밝히고 있고, (다)에서는 부버가 제시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뿐,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② (다)에서 부버의 견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은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있을 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이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다)에서 부버가 제시한 '나'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제시할 뿐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02 세부 정보 확인

(바)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객체가 아니라 또 다른 주체와 동격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그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것'에 해당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 나와 상대방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사르트르는 내성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사르트르가 의식 속의 수많은 경험들과 '나'의 경험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어서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개별성), 잡히지 않는 대상(추상성)이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이론적·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그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의 위인지학(爲人之學)은 남에게 보여 주고 인정받기 위한 학문이다. 이 글에서 '기차의 속도'를 안다는 것은 본질적인 '나'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인지학(爲人之學)은 본질적인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유교는 자신에 대한 수양을 우선시하였고, 이 글의 (가)에서는 '나(자신)'를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보기〉에서 유교는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나)에서 '내성'은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보기〉에서 수양을 통해 남을 닮아보기보다는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 수 있

다고 하였다. (라)에서 부버 역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보기〉에서 유교는 수양과 수신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다)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 목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 즉 '나'를 아는 것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교과서 수능 실전 07

본문 276~277쪽

01 ② 02 ③ 03 ④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 **해제** 이 글은 1873년에 발표된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잉여라는 경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포그는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2만 파운드가 걸린 내기를 하는데, 그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여행을 지속한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포그의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불 용의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최고 금액을 의미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앨프리드 마셜은 이와 관련하여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정의한다. 또한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지닌 사람은 시장을 이용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 **주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 알아본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

구성

(가)	포그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
(나)	높은 수준의 지불 용의 가격을 가졌던 포그
(다)	소비자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우표의 가치와 지불 용의 가격
(라)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예
(마)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경쟁적 시장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지불 용의 가격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소비자 잉여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



경제학적으로 본 포그의 여행

- 지불 용의 가격: 교통수단에 대한 포그의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소비자 잉여: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에는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림.

01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지불 용의 가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장을 이용할 때 큰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지불 용의 가격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지불 용의 가격이 상품의 실제 가격보다 높거나 같아야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③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과 상품의 실제 금액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을 의미한다.

④ 지불 용의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여 정한 금액이므로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 같을 수도 있다.

⑤ 같은 물건의 경우,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판매되지만, 지불 용의 가격이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잉여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02 정보 추론

[A]의 뒤에는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A]에는 A 소비자가 B 소비자보다 더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것은 ③이다. ③에서 A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1,000원이고,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500원이다.

오답 풀이 ① A 소비자와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모두 500원으로 동일한 경우이다.

② A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500원,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1,000원으로, B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가 더 큰 경우이다.

④ A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으므로 A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으며, B 소비자의 경우 지불 용의 가격과 시장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A 소비자와 B 소비자 모두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⑤ A 소비자와 B 소비자 모두 지불 용의 가격과 시장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에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해외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국내의 소비자들끼리 동일한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도 해외 직구로 구입할 경우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전 세계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다고 해도, 그 가격보다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다면 소비자에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② 상품의 공급자가 다양한 이유로 상품의 가격을 나라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 경우이다. 하지만 상품의 공급자가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알았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③, ⑤ 가장 큰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이고, 가장 낮은 소비자 잉여를 얻는 경우는 낮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소비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이다.

교과서 수능 실전 08

본문 278~279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⑤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 **해제** 이 글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습에 따라 통용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권위 있는 인류학자가 연구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예로 들어 합리성이 문화적으로 정의된다고 말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만 해석되는 음식 금기에도 생태학적 합리성이 있음을 인도인의 소 송 배에서 비롯된 소고기 금기와 이슬람교도의 돼지 혐오에서 비롯된 돼지고기 금기를 예로 들며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돼지에 대한 다양한 상징성을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인구수와 가축 수를 조절하고 나누며,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카이코 축제를 소개하고 있다. 즉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모든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인간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환경의 영향에 의한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주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저마다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구성

(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합리성
(나)	환경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 인도의 암소 송배와 소고기 금기
(다)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금기
(라)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카이코 축제
(마)	각각의 문화가 지닌 합리성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인도인의 소고기 금기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금기	첼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
인도의 소는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노동력, 연료, 우유 등을 인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도인은 소를 송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음.	돼지고기는 병을 유발할 수 있고, 유목 생활이나 반정착 농경 생활을 하는 생활 특성상 돼지 사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혐오하고 먹지 않음.	돼지를 잡아먹거나 제물로 바치므로써 마링족이 사 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 수를 분배하고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음.

다양한 문화의 합리성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임.

01 전개 방식의 특징

(가)에서 글쓴이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ㄱ). 또한 저명한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와 로이 라파포트의 연구를 소개하며 문화의 합리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이 글에서는 문화의 합리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심 화제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ㄹ. 마빈 해리스는 종교적 음식 금기의 이면에 숨어 있는 생태학적 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로이 라파포트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족 수와 그 분배,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카이코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학자 모두 다양한 문화에 숨어 있는 생태학적 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정보 추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돼지고기가 선모충 증을 일으키거나 탄저병을 옮길 수 있고, 돼지 사육이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종교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모충증과 탄저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쳄바가 마링족은 돼지를 키우고 밭을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 정착 생활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 욕망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을 지닌 두 문화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식과 가치,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④ 글쓴이가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⑤ 쳄바가 마링족은 돼지가 밭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아욱과 싸움이 늘어나면 기르던 돼지를 대부분 잡아 식량으로 활용하는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황이 되면 돼지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졌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3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이 글의 글쓴이는 다양한 문화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오랜 지혜이자 귀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화가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특정한 문화를 가장 우수하다고 보지 않으며, 특정한 문화를 추종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② 글쓴이가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③ 글쓴이는 각 문화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 간 교류를 할 때 자국의 문화를 견고히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⑤ 글쓴이는 다양한 문화는 문화권의 다양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두에게 좋은 문화를 인위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04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에서는 생명 존중이나 인간의 존엄성, 자유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기르던 돼지 대부분의 생명을 빼앗는 카이코 축제는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의 관점에서는 생명 존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 현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돼지를 도살하는 쳄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에 대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거나 그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합리성을 획득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③ 〈보기〉에서는 지역과 부족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족에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축제라 하더라도 돼지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도살하는 카이코 축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판단할 것이다.

④ 카이코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족 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라고 하였으므로 순기능이 없는 비효율적 관습으로 보기 어렵다.

교과서 수능 실전 09

본문 280~281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⑤

나무의 힘

• **해제** 이 글은 케냐의 키쿠유족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자연, 특히 나무를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까닭을 생태학적, 종교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또한 사펠리나무를 베는 광경을 보았던 경험을 소개하고 그때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주제** 자연의 신성성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

• **구성**

(가)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숭배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공동체
(나)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
(다)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나무
(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
(마)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	나무가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
• 나무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함. •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인 울림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림.
↓	
자연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	
• 자연은 우리의 시들과 지친 영혼을 채움. • 자연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잊고, 영혼도 시들게 됨. •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음.	

01 핵심 내용 파악

(다)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키쿠유족이 회의를 할 때 부족의 어른이 쥐고 있던 시이기나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시이기나무의 의미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 (다)의 중심 내용이 평화를 사랑하는 아프리카의 공동체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많은 공동체에서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고 하면서 키쿠유 사회에서 '하느님의 나무'로 여겼던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를 예로 들고 있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한 것에는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하는 등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사펠리나무가 지닌 강인함과 생명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마)에는 나무와 숲, 자연을 만나고 사랑하자고 현대인들에게 당부하는 글쓴이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02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글쓴이는 자연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며 (ㄱ),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자연을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ㄷ) 자연 친화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ㄴ, ㄹ. 인간이 가장 중요하며,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3 정보 간의 관계 파악

키쿠유 사람들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를 숭배하여 그 나무 아래에서 제의를 올리고, 그 주변까지 신성시하여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도 줍지 않았다. 사펠리나무는 글쓴이가 별목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베어지던 나무의 종류일 뿐, 키쿠유 사람들이 사펠리나무라는 특정한 종류의 나무만 땀감으로 쓸

수 있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키쿠유족의 지혜로운 후견인이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는 것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였으며, 이는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키쿠유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 때문에 키쿠유 사람들은 나무를 언제나 동반자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무화과나무의 뿌리는 산사태를 막고,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해 주었고, 무화과나무 역시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키쿠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의 도움으로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키쿠유 사람들이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를 숭배하였으며, 그 아래에서 제의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04 전제 및 근거 추론

(다)의 첫 부분에서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⑦은 나무의 종교적인 면을 강조한 데에 반해, 나무를 식량이나 약재 등으로 활용한 것은 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생태학적 추론에 가깝다.

② 나무가 여러 동물에게 보금자리가 되어 준 것과 특정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③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이 특정한 나무 아래에서 오랜 세월 모여 살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나무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의 영역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교과서 수능 실전 10

본문 282~283쪽

01 ② 02 ④ 03 ③

세계 속의 1등, 양궁

• **해제** 이 글은 양궁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객관적·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양궁 선수들은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한다. 이때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이다. 먼저 활시위를 세계 당기면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해 낙하 시간과 낙하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발사 속도와 관련된 원리이다. 그리고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면과 4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물체를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것은 발사 각도와 관련된 원리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이와 같은 양궁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른 예를 들거나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주제** 양궁 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

• **구성**

1문단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양궁
2문단	양궁의 화살을 비롯한 포물선 운동의 사례
3문단	포물선 운동의 원인, 중력
4문단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① - 초기 발사 속도
5~6문단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② - 발사 각도
7문단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의 중요성
8~9문단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양궁의 특징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함.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임.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
활시위를 당기는 힘으로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하고, 과녁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발사 각도를 조절함.	공기의 저항은 화살 깃으로 해결 가능함.

0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양궁 속에 반영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ㄴ)로, 포물선 운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축구 경기와 농구 경기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ㄷ).

◀ **오답 풀이** ㄱ.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진 것은 맞지만 그 질문들이 중심 소재의 정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

ㄹ. 운동 경기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운동 동작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정보 추론

중력 이외의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물체를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공기의 저항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있기 때문에 물체의 각도가 몇 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는 이 글의 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초기 발사 속도가 달라지고, 초기 발사 속도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받아 화살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달라지므로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진다.

② 기존 화살보다 무거운 화살로 바꾸면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도 늘어난다.

③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가 같더라도 공기의 저항이나 바람의 영향에 따라 화살이 과녁에 꽂히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양궁 선수들은 과녁의 중앙을 맞추기 위해 활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9문단에서는 화살에 깃을 달면 화살이 회전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는 회전하는 팽이가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화살과 팽이 모두 포물선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화살을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살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이른바 공사의 패러독스 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② 공사의 패러독스 현상이 심하면 화살은 목표한 지점에 명중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는 같은 선수가 깃이 없는 화살을 쏘았을 때 7점이나 8점을 기록하고, 깃이 있는 화살을 쏘았을 때 9점이나 10점을 기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공사의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 뒤쪽에 강한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무게중심이 있는 앞쪽을 앞서려고 하면서 진동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이 글의 9문단에서 공기의 저항은 화살 깃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팔 길이와 근력에 맞는 활의 선택, 화살의 길이 조절, 화살 깃의 선택 등 보다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수능 실전 11

본문 284~285쪽

01 ① 02 ① 03 ②

인공 지능의 미래, 딥 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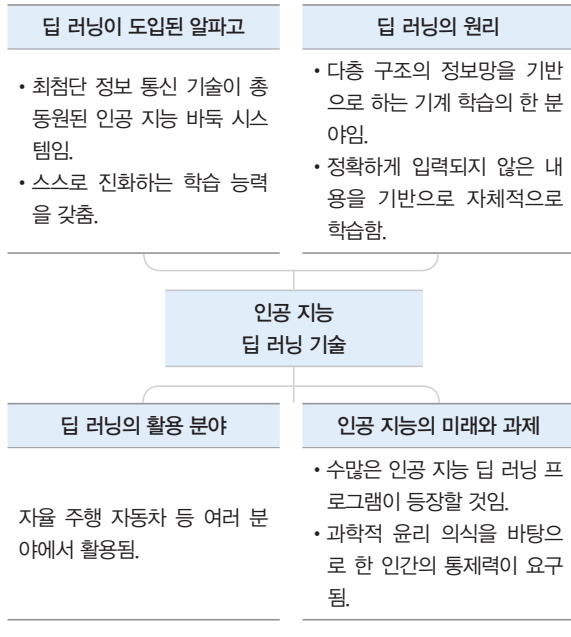
• **해제** 이 글은 인공 지능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다 준 딥 러닝을 중심으로 인공 지능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알파고는 인공 지능 바둑 시스템으로 무작위 방식에 따른 예상 확률에 기반을 두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CTS)을 바탕으로 한다.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 지능은 딥 러닝의 방식을 따르는데, 딥 러닝은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결과를 내놓는 기계 학습의 한 분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원리를 따른다. 이러한 딥 러닝은 자율 주행 자동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인간이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공 지능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과학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인공 지능 기술의 원리와 특징

• 구성

(가)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반영된 인공지능, 알파고
(나)	딥 러닝의 원리
(다)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가진 알파고
(라)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에 활용된 딥 러닝
(마)	알파고가 바둑 대결에서 거둔 승리의 의미
(바)	인공지능을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 지문 한눈에 정리하기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의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와 특징이다. 이 글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여 화제가 되었던 알파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 러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질문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이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딥 러닝이 활용된 분야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닌 하나의 예를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은 사례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한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⑤ 딥 러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알파고가 바둑돌을 놓을 위치를 선택하는 원리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행 원리를 설명한 것이므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02 세부 정보 확인

알파고는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총동원된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다.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긴 하나, (다)에서 ‘구글이 알파고에 도입한 딥 러닝도 이러한 기계 학습의 한

종류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자율 주행 자동차에는 딥 러닝이 적용되어 있으며, 딥 러닝은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종합하여 결과를 내놓으므로 딥 러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운행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딥 러닝은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 학습의 한 분야이며, 기계 학습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④ 딥 러닝을 도입한 알파고는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딥 러닝을 활용한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향후 어떠한 창의성을 발휘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⑤ 인공지능은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단련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알파고에 3,000만 건의 기보를 입력한 것이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는 의학 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인 왓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왓슨은 천문학적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치료법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나,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미국에서는 왓슨이 암에 대한 진단이 90% 이상 일치되는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였고, 국내에 도입된 왓슨은 치료 계획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왓슨은 암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왓슨은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의 암 치료 가이드와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 센터(MSKCC)의 전문 지식 데이터 등 천문학적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참고해 치료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④ 이 글에서 인간이 과학적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공지능은 과학 발전의 결과물로서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왓슨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⑤ 왓슨의 경우 미국에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수집하여 학습한다면 좀 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